

December
2011. 12

ISSUE 2012년 대전·충청권부동산 시장 전망 /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기업탐방 (특) 에스앤비푸드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EONGNAM-DO HEART OF KOREA CHUNGCHE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E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E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2011년 12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 · 성태규

편집위원 윤영우, 임재영, 고석철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임형빈, 김윤아

경제일지 김석필, 전미영, 김범수

외부집필진 조수희(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동산연구센터)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3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15
기업탐방	(주)에스앤비푸드	25
경제동향	경제동향 (요약)	35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물가	7. 건설·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57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5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7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9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84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8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조 수 희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동산연구센터 연구원

1.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스페인, 이탈리아 재정 및 실업문제,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협약 체결에 동의¹⁾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법의 불투명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된다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 국가 자체 노력 뿐 만 아니라, EU, IMF 등 국제기구의 대응으로 유럽 발 금융위기 초래되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임
- 2012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및 저성장 기조,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재정적자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BRICs의 물가급등에 따른 금융긴축 기조, 세계 경제를 지탱해 주던 중국경제의 성장 한계가 노출되는 등 신흥국의 성장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1) 2011년 12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재정적자 비중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정협약 체결에 합의, 재정통합을 위한 기반을 만들. 이에 따라 2012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인 새로운 재정협약에 따라 참가국들이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 총생산(GDP)의 3%, 국가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해야만 함. 또한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천억유로를 추가로 출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2013년 출범할 예정이었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2012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하는 등 금융 시장 불안성 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에도 합의함(이데일리, 2011.12.10).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세계	4.9	3.8	3.5
선진국	3.0	1.6	1.3
미국	3.0	1.5	1.3
일본	4.0	-0.7	1.7
신흥국	7.0	6.0	5.6
(중국)	10.4	9.0	8.4
(인도)	9.0	7.7	7.5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등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악재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201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3.4% 성장에 그치며, 2010년 4/4분기(4.7%) 이후 2분기 연속 성장세가 둔화됨²⁾
 -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투자자의 자금 회수로 인해 8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 민간소비 위축, 정부의 경기부양여력 약화 등으로 인해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전망이 밝지 않음
 - 정부(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함
 - 한국은행의 '2012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4.3%보다 0.5%포인트 낮은 3.7%로 대폭 낮춰 전망함
 - 삼성경제연구원(2011)은 2012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성장동력의 부재로 성장률을 3.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 외 한국개발연구원(KDI) 3.8%, LG경제연구원 3.6%, 국회예산정책처 3.5%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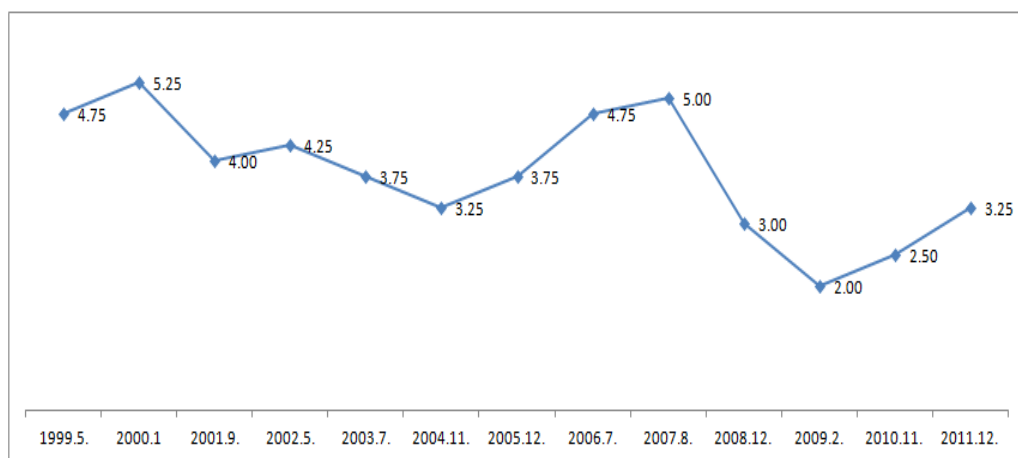
2) 삼성경제연구소(201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 부동산 시장 영향변수 및 동향

1) 금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금리는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경기침체 등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현재까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음
-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금리 하락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실물경기 둔화 및 주요국의 저금리정책 등으로 인해 금리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 및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에 대한 압력도 적지 않음
 - 한편, 브라질, 터키,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자국의 경기둔화 위험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추세에 있음
-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 기준금리를 3.25%로 6개월째 동결하고 있으며, 경기둔화 위험의 지속성으로 2012년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부동산 정책

- 2011년 부동산 시장 중 주택 매매시장은 수도권 약세, 지방 강세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주택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함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었으나, 대전 등 지방권은 수급의 불균형,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주택 전세시장은 수도권, 지방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3배 상승하였으며,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2.11 대책, 6.30 대책, 8.18 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함에 따라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방안,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 주택·건설시장 전반의 회복 지원 방안을 망라한 1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함
 -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음
 -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으로써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조합원 지분 전매)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3년으로 짧아짐
- 2011년 발표한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DTI, LTV 등 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규제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에서만 유지되게 되어 사실상 부동산 관련 규제의 대부분이 해제된 것으로 보임
- 한편, 2012년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확대 및 총선·대선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면 완화되었던 정책이 다시 규제될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위해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다시 부활 할 수도 있음

3.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동향

1) 주택보급률

- 주택보급률은 $\frac{\text{주택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의 산식으로 산정됨
 - 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한 주택수 +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호수
 - 가구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로 최초로 100%를 상회하였으며, 2010년 17,339가구 대비 17,672호수로 주택보급률이 101.9%로 나타남
 - 선진국의 주택시장을 보면 105~110% 수준으로 형성되며,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하기 보다는 수익형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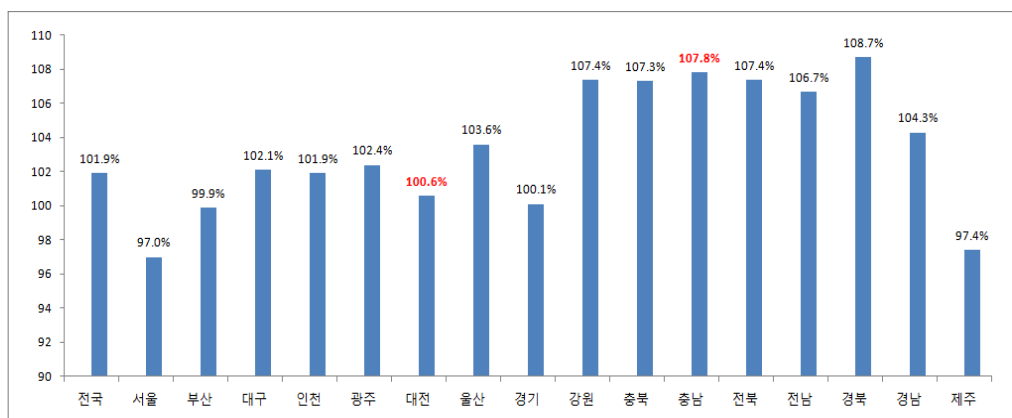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구수	16,105	16,364	16,619	16,862	17,339
주택수	15,978	16,295	16,733	17,071	17,672
보급률	99.2	99.6	100.7	101.2	101.9

자료: 국토해양부.

- 2010년 지역별 주택보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100.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충남은 107.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2010년 지역별 주택보급률



자료: 국토해양부.

2) 주택 공급

- 전국적으로 2011년 아파트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314,404호 보다 적은 210,403호이며, 2012년에는 더욱 줄어든 158,49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5만호 정도 공급되던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2011년 3만 3천호, 2012년에는 1만 6천호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 대전의 경우 매년 9천호 정도 공급되던 물량이 2011년 12만호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크게 감소한 5천호 가량만 공급되어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이 예상됨
- 충남은 매년 1만 5천호 공급되었으며, 2011년에는 1만 4천호, 2012년 1만 1천호로 감소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물량 부족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역별 아파트 입주 및 입주예정물량

(단위: 호, %)

구분	최근 10년간 평균 (2001~2010)	2011년 입주물량	2012년 입주예정물량	2012년 비중(%)	
				2011년 대비	10년간 평균 대비
전국	314,404	210,403	158,498	-24.7	-49.6
서울	50,992	33,331	15,833	-52.5	-69.0
대전	9,110	11,801	4,783	-59.5	-47.5
충남	14,754	13,954	10,796	-22.6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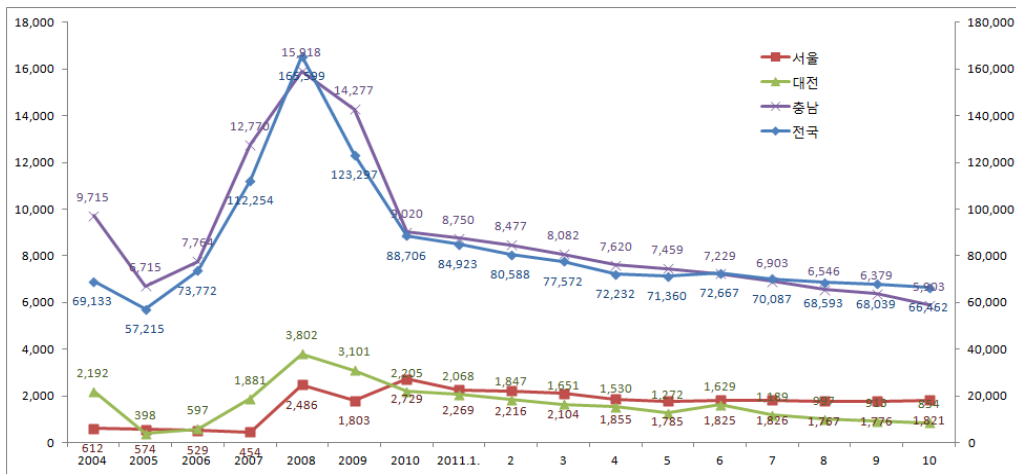
자료: 주택산업연구원(2011), 재정리.

3) 미분양 주택 추이

-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2005년 57,216가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165,599가구로 급증하였다가 2011년 10월 66,462가구로 감소함
 - 일반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5만 가구 이하로 감소하면 분양시장 회복 등 주택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수도권을 선두로 전국적인 동조현상에서 국지적으로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의 변화율은 미미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었으며 충남의 경우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소폭 감소하였음

미분양 주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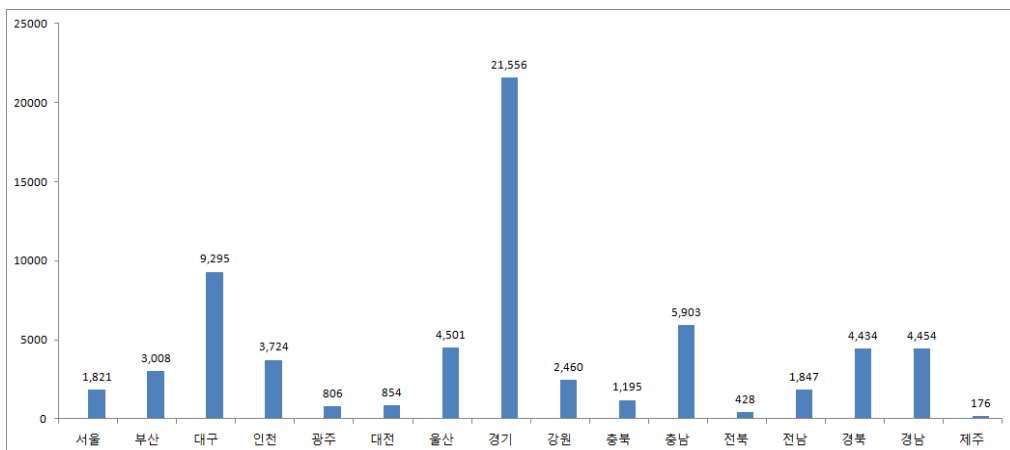


주: 전국 자료는 오른쪽 축이 범례임

자료: 국토해양부.

- 2011년 10월 현재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도급 광역자치단체(수도권 제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2011년 10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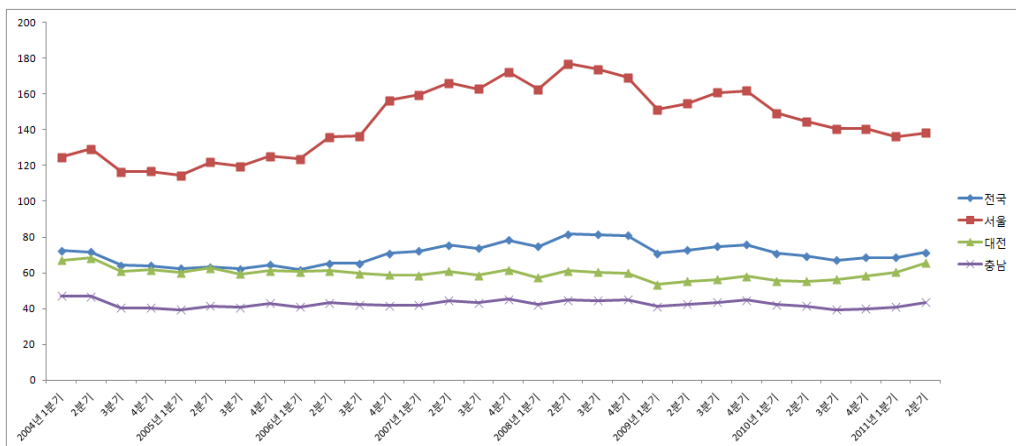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4) 주택구입능력지수

- 주택구입능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란 가계 소득과 주택가격 등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frac{\text{평균가구소득}}{\text{상환요구소득}} \times 100$ 의 산식으로 산출함
 -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함
 - 주택구입능력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대출상환이 어렵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렇지 않음을 의미함
- 2004년 1분기 이후 서울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2006년 3분기 이후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08년 3분기에 급락한 후 소폭 하락 추세임
- 대전·충남의 경우 2004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큰 변동 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들어서 전국 및 수도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음
 - 2011년, 대전의 경우 전세란을 시작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였고, 도안신도시 분양과 세종시 분양, 과학비즈니스벨트 호재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지수도 2011년 1분기에 비해 2분기가 5.2 포인트 상승함
 - 충남의 경우 세종시 및 홍성·예산 도청이전 신도시 호재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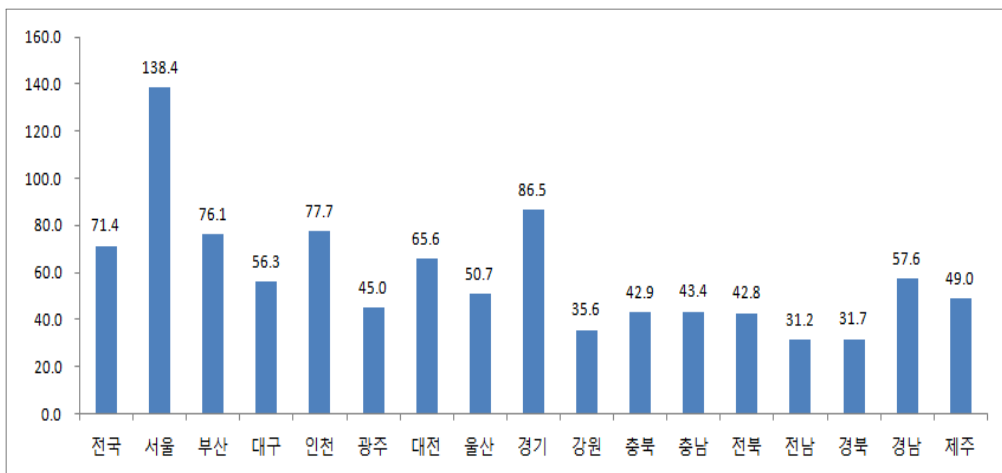
2004년 이후 대전·충남의 주택구입능력지수의 추이



자료: 주택금융공사.

- 2011년 2분기의 지역별 주택구입능력지수를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은 71.4이며, 서울 138.4, 경기 86.5, 인천 77.7, 부산 76.1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구입능력지수가 높은 편임
 - 대전은 65.6으로 광역시 중 인천(77.7), 부산(76.1)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43.4로 도급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57.6), 제주(49.0)의 다음 순으로 나타남

2011년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능력지수



자료: 주택금융공사.

5)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및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 2011.06=100을 기준으로 한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하락, 대전과 충남은 상승하였으며, 전세가격지수의 경우 전국, 서울, 대전, 충남 모두 상승함
 - 대전은 2009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수급의 불균형, 세종시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국책사업의 호재로 인해 2011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주택매매 · 전세가격지수 추이

(2011.06=100)

구분	전국		서울		대전		충남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2004. 12	75.1	73.7	70.0	71.2	80.4	70.6	92.2	78.8
2005. 12	78.1	75.9	74.4	72.8	82.1	71.0	94.7	84.2
2006. 12	87.2	80.8	88.4	80.0	81.5	70.9	94.5	85.2
2007. 12	89.9	82.9	93.2	83.0	80.6	72.2	95.3	87.4
2008. 12	92.7	84.3	97.9	83.9	81.1	74.5	96.4	90.2
2009. 12	94.1	87.2	100.5	89.0	85.0	80.6	96.3	90.5
2010. 12	95.8	93.4	99.3	94.6	91.8	92.7	96.7	95.1
2011. 01	96.3	94.2	99.5	95.5	92.8	93.7	96.8	95.5
2011. 02	97.1	95.7	99.7	97.2	94.5	95.9	97.1	96.2
2011. 03	98.0	97.4	100.0	98.5	96.2	97.3	97.8	97.3
2011. 04	98.8	98.5	100.0	99.2	97.3	98.5	98.8	98.7
2011. 05	99.5	99.3	100.0	99.6	98.3	99.1	99.5	99.5
2011. 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07	100.4	100.8	99.9	100.8	101.7	100.9	100.7	101.0
2011. 08	100.9	101.9	99.9	102.1	103.1	101.8	101.6	102.3
2011. 09	101.5	103.3	99.9	103.8	104.5	102.7	102.5	103.5
2011. 10	101.9	104.2	99.8	104.7	105.3	103.4	103.4	104.6

자료: 국민은행

- 아파트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의 상승은 매매가격 하락 또는 전세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반대로 비율의 하락은 매매가격 상승 또는 전세가격 하락을 의미함
- 전국과 서울의 경우 2008년 12월을 저점으로 2011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 2004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1년 상반기 정점을 통과하고 하락세에 진입함
 - 대전의 아파트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정점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2011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이 60.0%로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50.5%로 아파트 매매수요로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움

아파트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2011.06=100)

구분	전국	서울	대전	기타지방
2004. 12	57.2	49.1	58.5	64.5
2005. 12	57.1	48.4	57.6	63.5
2006. 12	54.7	43.8	57.8	63.4
2007. 12	54.0	42.2	60.2	64.2
2008. 12	52.4	38.7	62.4	63.5
2009. 12	53.9	40.6	63.7	65.7
2010. 12	57.1	44.4	70.2	67.1
2011. 01	57.3	44.8	70.4	67.2
2011. 02	57.8	45.6	70.8	67.4
2011. 03	58.4	46.4	70.6	67.5
2011. 04	58.9	46.8	70.7	67.7
2011. 05	59.0	47.0	70.3	67.7
2011. 06	58.5	47.4	69.1	66.4
2011. 07	58.7	48.0	68.4	66.4
2011. 08	59.1	48.9	68.0	66.4
2011. 09	59.7	49.9	67.7	66.5
2011. 10	60.0	50.5	67.4	66.7

자료: 국민은행

4.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 유럽 재정위기 해법의 방향, 세계 및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금리, 서울 및 수도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등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영향변수에 의해 내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운곽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은 재정긴축 정책을, 신흥국은 금융긴축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및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 금리는 현 수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차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규제

의 대부분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2012년 강남 3구의 규제 완화가 아닌 취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대전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충남은 여전히 보합세로 예상되나, 대형국책사업인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로 인한 국지적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구분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고
경제	세계경제 전망	부정적	하락세
	경제성장을 추이	부정적	하락세
	기준금리	긍정적	동결 및 하락
수요	주택구입능력지수	긍정적	상승하였으나, 전국보다 낮음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긍정적	매매수요로 전환 가능성 있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국책사업 호재	긍정적	기대심리 작용
공급	주택보급률	대전: 긍정적, 충남: 부정적	대전: 전국보다 낮음 충남: 전국보다 높음
	주택 공급	대전: 긍정적, 충남: 부정적	대전: 급감 충남: 소폭 감소
	미분양 주택	대전: 긍정적, 충남: 부정적	미분양 주택 감소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201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주택금융공사(2011), 주택금융월보 2011년 11월호.

주택산업연구원(2011), 2012년 주택시장 전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고 승 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수출-내수기업 양극화,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커지면서 소득양극화³⁾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1.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황

현재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은 경제부문 간, 기업규모 간, 근로자 및 소득계층 간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국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매년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특히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⁴⁾ 고용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돌파하였고('10.5), '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 상위

3) 소득양극화란 봉급생활자(도시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간 차이 비율을 의미.

4)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가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추세.

20%가 총 소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 2,257억원이며 이 중 상위 20%의 소득은 64조 4,203억원으로 전체 71%를 차지했으나 하위 20%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자 소득 중 3분의 2이상을 상위 20%가 벌어들였다는 결과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돼 소득 상위-하위 20%의 소득격차가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지난 1999년 5,800만원에서 지난 2009년 9,000만원 까지 오르면서 약 55% 정도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는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줄어 오히려 54%나 급감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 315조 7,363억원 가운데 상위 20%의 급여액은 131조 1,652억원으로 전체 41%를 차지했지만 하위 20%의 급여액은 25조 2,242억원으로 전체의 8%에 그치고 있다. 급여소득자의 소득 쏠림현상은 자영업자보다 덜하긴 하지만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소득양극화가 도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농가 평균소득은 3천212만1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위 20% 미만의 평균소득은 7천731만8천원, 20~40%미만 3천663만8천원, 40~60%미만 2천417만5천원, 60~80%미만 1천579만4천원, 80~100% 660만1천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농가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11.7배나 됐다.

반면에 작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4천809만2천원이었고, 상위 20% 미만 평균소득은 8천778만8천원, 20~40%미만 5천668만1천원, 40~60%미만 4천358만1천원, 60~80%미만 3천285만3천원, 80~100% 1천947만6천원 등이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4.5배였다. 또 농가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6.8%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일수록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경우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88.1%를 차지한 반면에 하위 20%는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33.9%에 불과했다.

농가소득과 직결된 농가의 부채는 2007년 농가당 평균 2천994만6천원이었으나 2008년 2천578만6천원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09년 2천626만8천원, 2010년엔 2천721만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농가 부채는 소득의 84.7%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구조는 2007년까지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빈곤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간층의 비중은 2007년 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중간층의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⁵⁾.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2인이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곤층	12.53	13.13	13.76	13.70	14.21	14.15	14.12	13.83
중하층	13.70	13.11	13.00	13.47	12.64	12.01	12.75	12.47
중간층	54.51	53.84	53.14	51.87	51.59	52.39	52.22	53.07
상류층	19.26	19.92	20.11	20.96	21.56	21.45	20.91	20.63

주 : 1) 농어가가구 제외.

2)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1인가구 포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빈곤층	16.28	17.19	17.76	18.42	18.30
중하층	12.56	11.97	11.66	11.97	12.01
중간층	48.36	47.56	47.11	46.08	47.60
상류층	22.79	23.29	23.47	23.53	22.09

주 : 1) 농어가가구 제외.

2)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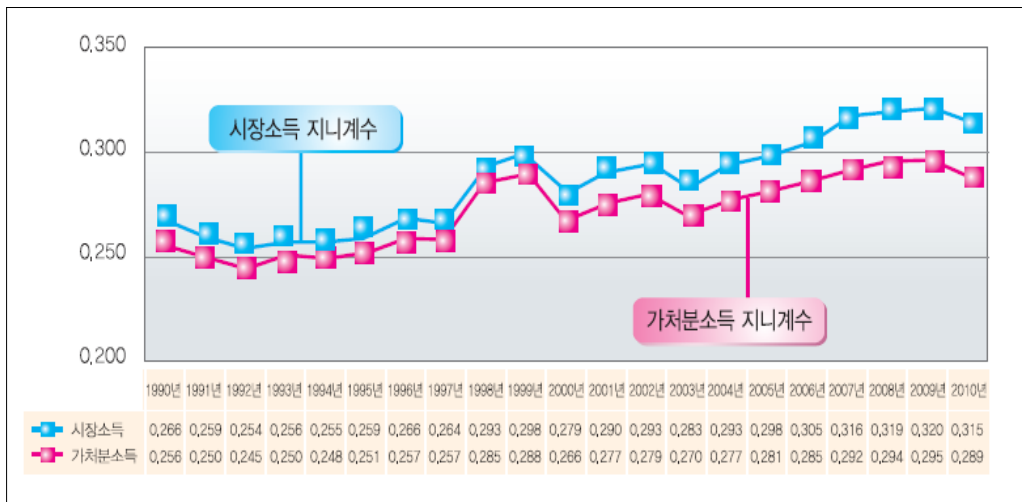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는 0.2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0.288로 급증하였다. 외환위기 전후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가 상승하였다. 2007년-2008년에는

5) 2000년대 중반 한국 노인인구의 상대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인 13.3%의 3.4배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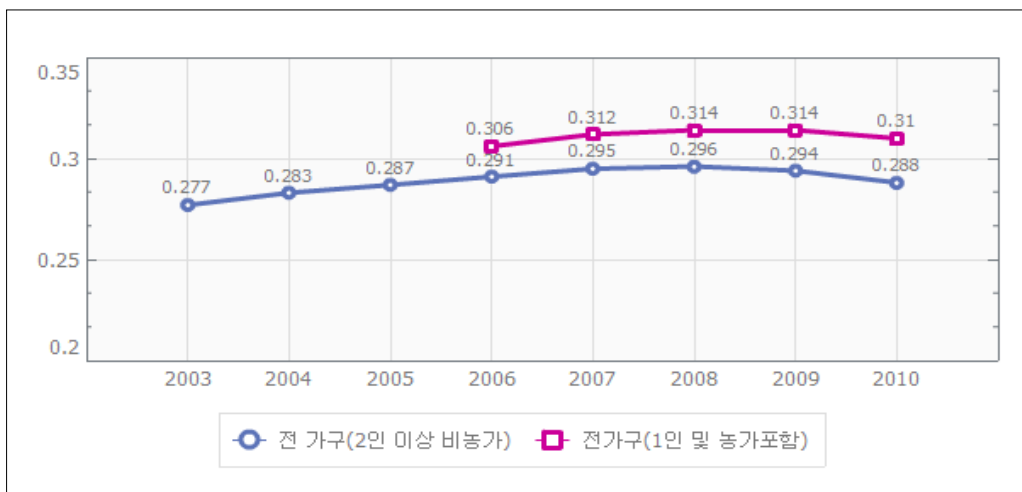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0.294, 2009년 0.295로 소득불평도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0.289로 다소 낮아졌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 0.026 수준의 개선효과를 유지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최소화하고 개선효과가 확산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추이



연도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1인 및 농·림·축·수산업 포함)	-	-	-	0.306	0.312	0.314	0.314	0.310
전국 (2인 이상 비농가)	0.277	0.283	0.287	0.291	0.295	0.296	0.294	0.288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0~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후 둔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 간 연계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화, 기술변화, 고령화·저출산 등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소득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의 분배효과가 사라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문제되는 것은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외 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OECD 국가의 3/4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어 과거 20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최상위 10%의 소득계층과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격차는 과거 20년간 7~8% 증가되었다.

OECD 사무총장은 불평등 심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 국가, 세계를 이분화시키며, 세대 간의 상향 이동을 억제하고 유능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OECD 주요국의 실질 가처분가구소득 연평균 변화(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국가	전체인구	소득 하위10%	소득 상위10%	국가	전체인구	소득 하위10%	소득 상위10%
호주	3.6	3.0	4.5	이탈리아	0.8	0.2	1.1
오스트리아	1.4	0.4	1.6	일본	0.3	-0.5	0.3
벨기에	1.0	1.7	1.5	룩셈부르크	2.3	1.8	2.8
캐나다	1.1	0.9	1.6	멕시코	1.4	0.8	1.7
칠레	1.5	2.5	1.0	네덜란드	1.4	0.5	1.6
체코	2.7	1.8	3.0	뉴질랜드	1.5	1.1	2.5
덴마크	1.0	0.7	1.5	노르웨이	2.3	1.4	2.7
핀란드	1.8	1.3	2.7	포르투갈	2.2	2.4	2.3

국가	전체인구	소득 하위10%	소득 상위10%	국가	전체인구	소득 하위10%	소득 상위10%
프랑스	1.2	1.6	1.3	스페인	3.7	6.0	3.0
독일	0.9	0.1	1.6	스웨덴	1.8	0.4	2.4
그리스	2.1	3.4	1.8	터키	0.5	0.8	0.1
헝가리	0.6	0.4	0.6	영국	1.9	0.9	2.1
아일랜드	4.7	4.5	3.7	미국	1.3	0.5	1.9
이스라엘	1.7	-1.1	2.4	OECD-29	1.7	1.4	2.0

자료 :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ckle it? Forum, Paris, 2 May 2011(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2. 양극화의 원인과 문제

선진국 대비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 열악,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기간에 비정규직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연봉제와 성과급제도의 영향으로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 등에 따른 최초 급여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IMF구제금융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통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도 꼽을 수 있다. 산업 특성상 수출 중심 대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반해 중소기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중소기업생태계의 설자리마저 앗아 만들었고 결국 소득양극화 현상도 가중시켰다.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산층의 몰락으로 사회 계층이 중간층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언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확대와 조세구조 개편 그리고 재벌 규제 등을 큰 틀에서 제언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확충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 차원의 소득 양극화 해법은 재정·세제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담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회보장 시설 및 인력확대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지출 중 사회보호 비중과 개인소득세,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률이나 수출증대보다 건강한 일자리 창출 자체에 두고 수출지원형의 현행 조세 구조를 선진국형 고복지 사회에 맞는 조세제도로 개편하며 감세 및 면제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소득 최고위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현행 50% 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25%대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거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하는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일자리 수가 아니라 양극화가 문제다(경향닷컴, '10.1.26), 부자증세 빈자감세 정책필요- 22차 양극화 경제토론(데일리리뷰, '11.8.26), [국감] 김성곤 “사회 양극화, 북한 위협보다 심각” (아시아투데이, '11.10.17)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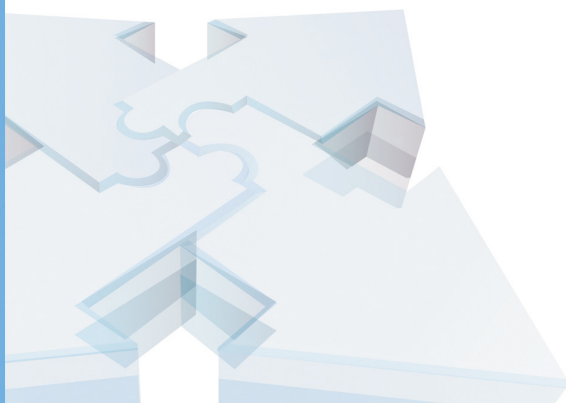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1.8.19.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주)에스앤비푸드

- www.sbfood.co.kr -

핀란드에서 소시지는 해방의 의미를 내포한 sisninen(파란색)으로 불린다. 그들이 소시지를 파란색으로 지칭한 배경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2차 대전으로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며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전 후 패전국이 된 핀란드는 배상금에 시달렸다. 결국 전 후에도 여성들은 일을 지속해야 했고, 퇴근 후 저녁을 준비 하는 것은 곤욕스런 일이 됐다. 이런 가운데 소시지가 큰 인기를 끌게 됐다. 일과 가사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소시지는 간편히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주부들에게는 가사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충남 논산에도 식탁 위의 ‘건강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 있다.

육가공 전문 업체인 (주)에스앤비푸드는 소시지의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다양함과 간소함을 곁들여 현대 식생활의 새로운 의미를 가미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에스앤비푸드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맛의 즐거움과 간편함을 통해 일상의 '해방'을 선사하는 (주)에스앤비푸드

“소시지가 너무 맛있네요. 에스앤비푸드 쇼핑몰에서 청양, 불갈비 등을 구입해 먹었는데, 가족과 주변 지인들도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맛이 좋은데 영양성분을 보니 100g당 105칼로리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주)에스앤비푸드(<http://www.sbfood.co.kr>)의 제품을 접한 소비자의 반응이다.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에스앤비푸드는 자신들의 제품을 맛본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 간편함에 놀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전북 익산의 조그마한 업체로 출발한 (주)에스앤비푸드는 소비자에게 최상의 맛과 간편함을 제공하기 위해 7년에 걸친 기술 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현희 대표이사의 소시지에 대한 열정과 애착은 남달랐다. 이 대표는 “소시지 등 육가공 식품은 단순 먹을거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능성의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핀란드에서 소시지가 해방으로 의미되는 만큼, 우리도 소시지가 소비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들 줄 수 있는 기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 과정을 이수, ‘건강 기능성 햄·소시지의 문제점 및 개발방향에 관한 고찰’ 논문을 작성할 만큼 열의를 갖고 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육가공의 다양한 기능과 장점, 그리고 문제점 등을 고민하고, 인스턴트식품으로 불리우는 소시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그동안 비만과 위생 문제, 화학첨가물 등으로 저평가를 받아온 육가공 식품을 맛있고 안전하며 동시에 건강에도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경영목표가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친환경 재료만을 엄선,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을

최근 충남도가 3농혁신을 통해 로컬푸드(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운동)를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 내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생산물을 지역 내 기업이 소비해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는 상생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주)에스앤비푸드는 로컬푸드 운동을 몸소 실천해 오며 착한 소비 기업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대표에 따르면 그동안 육가공 식품에 있어 위생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재료의 엄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주)에스앤비푸드에서 생산된 육가공 제품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영양과 건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소시지 재료로 사용되는 양파는 인근 영농조합과 계약재배를 통해 들여오며 고추는 청정지역인 청양에서, 육류 역시 지역 내 축산농가로 부터 직접 공급을 받아 싱싱함이 살아있다. 또한 특허까지 따낸 대표적 제품인 울금 소시지에 들어가는 재료도 지난해부터 지역농가를 통해 계약재배를 받는 등 로컬푸드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소시지의 주요 재료들을 지역농가에서 곧 바로 공수, 냉동 없이 직접 선별해 넣는 만큼 타 회사의 제품에 비해 맛이 깊고 영양이 풍부한 반면 칼로리는 낮다.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하는 이 대표는 “자연의 생명력이 건강한 손을 내민다”라는 강한 믿음을 보이며 “건강함은 대자연의 사랑”으로 풀이하는 등 육가공 식품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울금을 이용한 소시지
제조방법 특허증

자연을 담은 다양한 맛을 간편히 즐겨보자

수제소시지&훈제육전문사인 (주)에스앤비푸드의 대표 브랜드는 ‘독일풍 수제소시지 도나우’이다. 도나우는 독일에서 발원해 유럽에서 2번째로 긴 도나우강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소시지의 본 고장인 독일을 상징한다. 동시에 도나(豚:돼지돈)우(牛:소우)의 뜻도 함께 담고 있다. 도나우가 소시지의 본고장을 의미하는 브랜드인 만큼 제품 개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뜨겁다.



독일풍 수제소시지 도나우

타 업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소시지의 기능성에 주목한 (주)에스앤비푸드는 올해 특허를 3건이나 등록했고, 이어 참깨박을 이용한 기능성 소시지의 특허 출원에 들어간 상태다.

참깨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을 첨가한 참깨박 소시지는 기존 동물성 기름으로 첨가된 제품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건강 측면에 있어 소시지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정부도 참깨박을 이용한 소시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해 1억 7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자타가 공인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오메가 3를 이용한 제품도 기획단계에 있다.

이 대표는 “단백질과 함께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경영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웰빙 소시지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소시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주)에스앤비푸드가 내놓은 제품만 해도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불갈비맛 소시지를 손꼽을 수 있다. 한식의 대표적인 맛을 살려 전통갈비맛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옥수수 알갱이가 박혀있어 씹는 맛이 툭툭 튀며 옥수수의 구수한 맛을 지닌 콘소시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이다. 특히, 터지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아이들의 간식이나 반찬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다. 뒷맛을 깔끔히 잡



HACCP 지정서

아주는 청랑고추맛 소시지도 인기다. 화끈한 청양고추와 소시지가 만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을 갖고 있어 술안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파프리카나 파슬리와 브로콜리, 인삼, 김치 등이 가미된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업체의 육가공 개념트는 HACCP(해썹)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강한 맛과 즐거움을 제공, 육류의 한정적 이미지에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매년 성장하는 기업

(주)에스앤비푸드가 처음 육가공업에 뛰어 들었을 당시 매출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육가공 업계의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4억 원에 머물렀던 매출액은 2007년 8억 원으로 뛰었으며, 2008년에는 20억 원, 2009년에는 30억 원까지 크게 올랐다. 지난 2010년에는 총 40억 원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올해는 100억 원을 목표로 기업 운영에 매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충남도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7월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오는 2017년까지 정책 지원을 받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 병역특례산업 지정업체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INNOBIZ), ISO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선정되는 등 논산을 대표하는 육가공 생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에스앤비푸드는 최고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가 되기보단 기본에 충실해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우리는 식품생산기업이므로 고객의 식품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최고보단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주요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인터넷 홍보를 통한 시장 접근과 TV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전략, 카탈로그 및 공모전,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직접 홍보, 유관기관과 협약과 협력사 활용을 통한 대외협력 확대 등 제품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장 진출 전략 하에 현재 전국에 걸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기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업체 200여 곳을 주요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시장에도 판매망을 갖는 등 육가공 업계에서는 이미 선두 자리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주)에스앤비푸드의 이 같은 성장 이면에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불어 닥친 구제역 파동으로 가사상태에 이르는 경험도 감내해야 했다. 구제역이 6개월 넘게 지속되며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의 경우 반년 동안의 생산 물량을 보관하며 수급 조절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구제역은 재앙이었다.

하지만 (주)에스앤비푸드에게 구제역 위기는 기업 구성원 모두를 일치단결시키는 계기가 됐고, 원가 절감과 절약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원료가 됐다. 특히, 이 같은 위기 속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주)에스앤비푸드만의 기업 혁신 정신이 빛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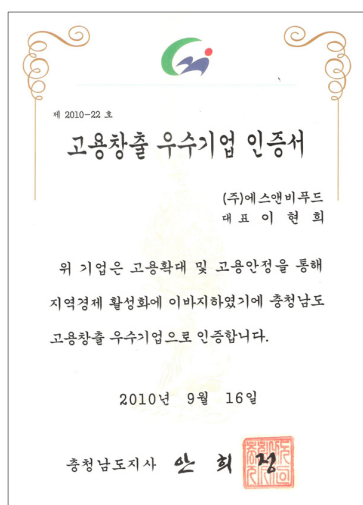
기업 구호인 ‘즉시’는 멀리 가기 위한 빠른 판단력을, ‘반드시’는 강력한 의지를, ‘될 때까지 해보자’는 함께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4만km를 날아가는데, 이들은 먼 길을 가는 동안 서로를 응원하는 울음소리와 동료가 쉽게 날 수 있도록 양력을 만들어 낸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험한 환경을 헤치며 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성장 동력, 신명나는 노·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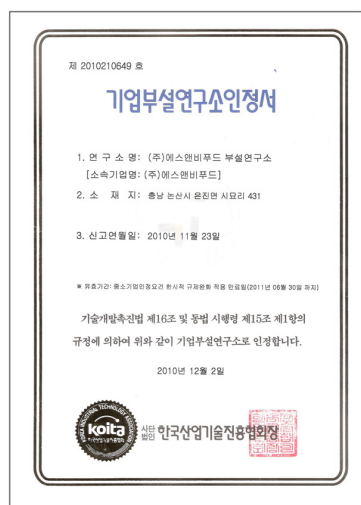
(주)에스앤비푸드 직원들은 마당극을 통해 신명나는 소통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전 직원이 함께 마당극 수업을 듣고 문화 동호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소통을 나눈다.

마당극을 통해 평소 교류가 적은 사무직과 생산직 사원들이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해 졌다. 마당극을 배우며 어깨를 부딪치며 서로 뒤엎기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감이 함께 높아졌다는 평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매주 모여 합창을 할 때면 서로 다른 언어와 세대, 성별과 관계없이 조화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 아직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마당극을 무대에 올려 고객들을 초청, 문화경영의 외연과 깊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기업

전북 익산의 조그만 업체에서 출발한 (주)에스앤비푸드는 2008년 논산에 이전, 매년 2배 이상의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만의 성장이 아닌 논산과 함께 하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논산 강경포구에서 개최된 ‘2011 논산 강경 발효 젓갈 축제’에 참여, 논산 시민과 호흡을 함께 했다. 축제를 통해 제품 시식과 함께 판매, 행운권 응모,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 지역민과 하나가 돼 축제를 즐겼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고용과 푸드뱅크 기부 등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민과 함께 윈-윈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에스앤비푸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기업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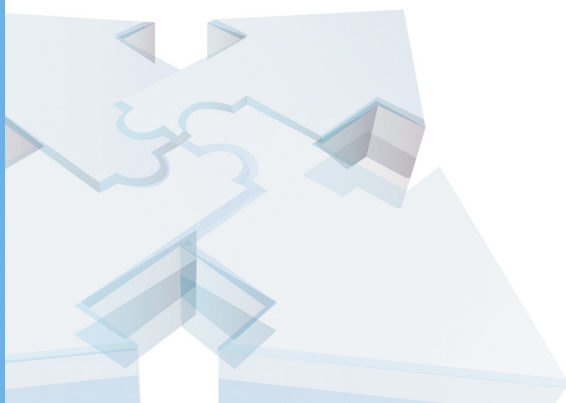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이 대표는 2020년까지 해외 10개국에 30개 지사를 설립,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2배 이상의 성장 신화를 기록한 만큼, 현재의 경영 철학과 열정, 노·사와의 협력을 유지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건강한 맛, 맛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본을 잃지 않는 게 목표다. 이러한 신념은 육가공 제품의 기능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위해 무한한 집중을 가능케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하겠다”며 “이러한 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해 한국 육가공 식품의 우수성을 입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 충청투데이 박재현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10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11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7.8	142.4	156.0	133.3	105.0	104.8	46,822	42,755	25,409	24,673	2.9
서울	92.6	93.4	165.3	138.5	104.2	104.6	4,842	9,600	5,234	5,024	4.0
부산	138.6	134.8	171.7	134.8	105.9	105.3	1,157	1,090	1,656	1,603	3.2
대구	122.4	121.8	156.0	116.7	105.5	105.0	568	294	1,227	1,195	2.6
인천	110.4	112.4	116.7	127.2	104.0	104.1	2,361	3,130	1,450	1,391	4.1
광주	139.7	137.3	111.6	137.7	105.3	104.9	1,091	448	698	683	2.1
대전	113.0	117.2	128.2	122.9	105.7	105.4	329	267	738	716	3.0
울산	126.8	131.7	122.2	122.3	105.8	105.1	8,519	7,658	556	547	1.7
경기	188.6	165.0	228.9	128.3	104.6	104.7	7,209	8,054	6,118	5,925	3.1
강원	126.3	126.2	177.1	137.0	105.7	105.0	188	131	719	707	1.6
충북	156.3	168.5	176.5	116.5	105.7	105.2	942	604	783	765	2.2
충남	242.6	219.8	270.7	178.3	105.1	104.7	5,542	2,835	1,066	1,038	2.6
전북	140.0	136.5	164.8	136.2	105.6	105.2	999	415	879	861	2.1
전남	127.9	123.4	120.6	137.5	106.0	105.2	2,981	3,700	923	910	1.5
경북	101.4	102.9	142.3	135.1	105.8	105.0	4,508	1,663	1,424	1,402	1.5
경남	137.4	141.6	126.3	145.9	105.5	105.2	5,575	2,843	1,642	1,613	1.8
제주	116.0	115.5	103.6	146.7	105.4	104.7	8	16	297	293	1.2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경제동향(요약)



- 10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모두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해 경기하강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10월 충남 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하락 및 기업경기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아 기업의 체감경기 둔화가 지속됨

고용사정은 다소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며, 산업활동의 상승세 지속 및 대외 거래의 개선, 물가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음

경기

- 10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139.3을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100.2로 전월과 동일
- 12월 BSI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월대비 하락(제조업82, 비제조업 77)
-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기전망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래시장 전망지수는 기준지수 100에 대부분 미치지 못해 재래시장 체감 경기 악화가 예상됨

산업활동

- 생산지수 252.8(+0.4%), 출하지수 228.0(+0.2%), 재고지수 269.4(+3.0%) 모두 전월 대비 증가
- 생산 및 출하지수 증가는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금속 등의 증가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10월 대형소매점(-2.6%) 및 대형마트(-12.2%) 판매액 모두 전월대비 감소
- 11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68,047대로 전월대비 0.2%(1,996대) 증가
- 11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104.7(0.0%) 전월과 동일, 생활물가지수 105.1(-0.1%) 전월대비 하락

수출입

- 10월 수출은 전월대비 2.0% 증가(55억42백만달러, 석유제품 +48.0%, 전자응용기기 +287.3% 등)
- 수입은 전월대비 11.5% 감소(28억35백만달러, 원유 69.2%, 석유제품 +38.0%)
- 10월 무역수지는 27억7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4억77백만달러 증가)

고용

- 10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2.6%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1.6%p 증가(64.5%)
-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103만8천명(농림어업 18만9천명, 광공업 21만3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63만6천명)
- 10월 실업률 2.6%로 전월대비 0.4%p 증가, 실업자 2만8천명으로 전월대비 23.7% 증가

금융

- 10월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전월대비 증가폭 크게 확대
- 10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1,881억원, 총 여신증감액 +7,520억원
- 10월 어음부도율 0.39%로 전월대비 0.11%p 상승
- 10월 부도금액 43억3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5억4천만원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10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70.1%(1,518,020㎡), 착공면적 75.0%(1,290,749㎡) 각각 증가
- 10월 주택매매가격 지수 104.4로 전월대비 1.0%(주요상승지역; 아산, 천안 동남구), 전세가격지수 106.2로 전월대비 1.5%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아산, 천안 동남구)

1. 경기동향

[전국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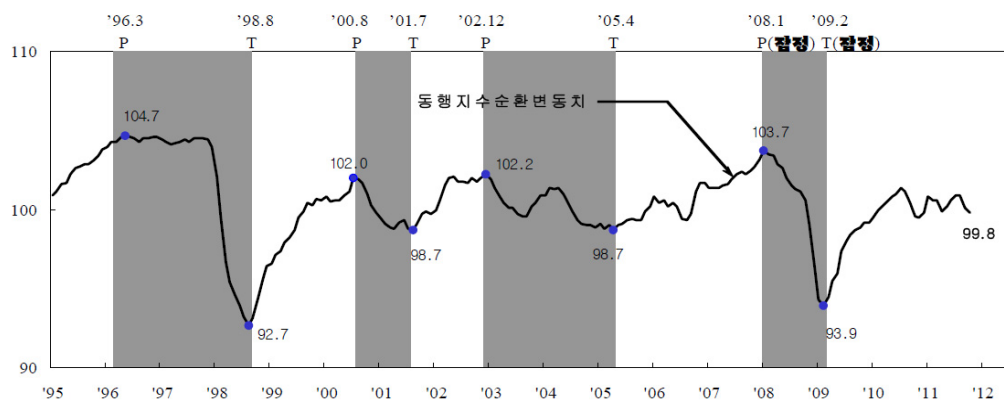
-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제조업가동률지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

구분	'1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동행종합지수	135.9	135.5	136.6	137.7	138.6	139.2	138.7	138.8
· 전월비(%)	0.4	-0.3	0.8	0.8	0.7	0.4	-0.4	0.1
○ 순환변동치	100.6	99.9	100.2	100.6	100.9	100.9	100.1	99.8
· 전월차(%p)	0.0	-0.7	0.3	0.4	0.3	0.0	-0.8	-0.3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 10월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금융기관유동성은 증가하였으나, 순상품교역조건, 종합주가지수, 자본재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4%p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선행종합지수	129.4	128.9	129.5	130.2	130.8	130.9	130.4	130.1
· 전월비(%)	-0.3	-0.4	0.5	0.5	0.5	0.1	-0.4	-0.2
○ 전년동월비	1.6	1.0	1.3	1.7	2.0	1.9	1.4	1.0
· 전월차(%p)	-0.7	-0.6	0.3	0.4	0.3	-0.1	-0.5	-0.4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100.2를 나타냄
 - 2011.10월중 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액, 수입액 모두 증가로 139.3을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동행종합지수	136.1	136.1	136.9	138.0	138.3	138.3	138.7	139.3
· 전월비(%)	0.2	0.0	0.6	0.8	0.3	-0.0	0.3	0.4
○ 순환 변동치	101.1	100.5	100.7	101.0	100.8	100.4	100.2	100.2
· 전월차(%p)	-0.4	-0.5	0.1	0.3	-0.2	-0.4	-0.2	0.0

주 : p는 잠정치임.

- 10월 충남은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액과 대형소매점판매지수, 비농가취업자수의 증가세 전환으로 모든 지표가 전월대비 상승
 - 비농가취업자수(+0.2%), 산업생산지수(+0.9%), 대형소매점판매지수(+0.4%), 전력사용량(+0.4%), 수출액(+1.0%), 수입액(+1.7%)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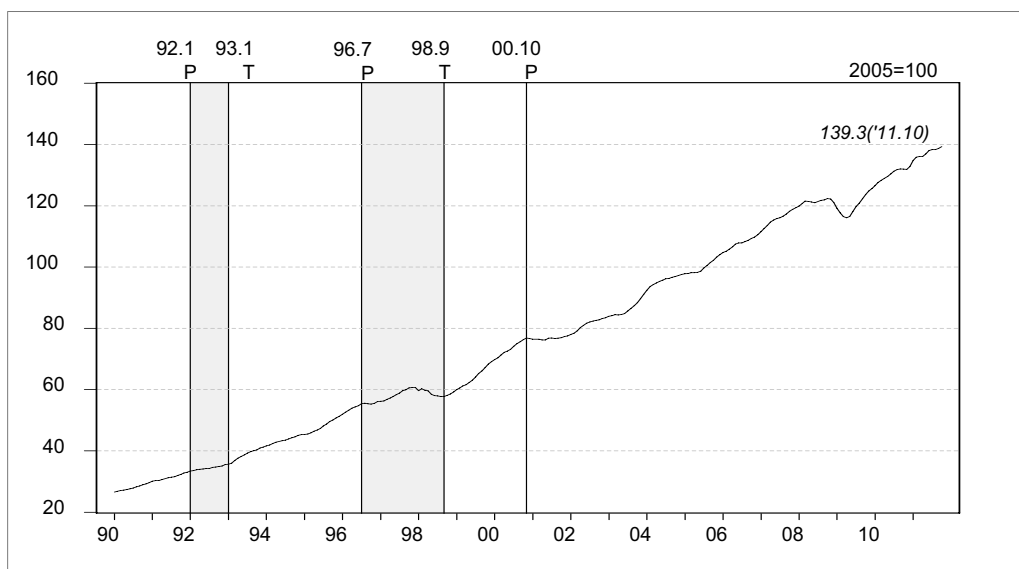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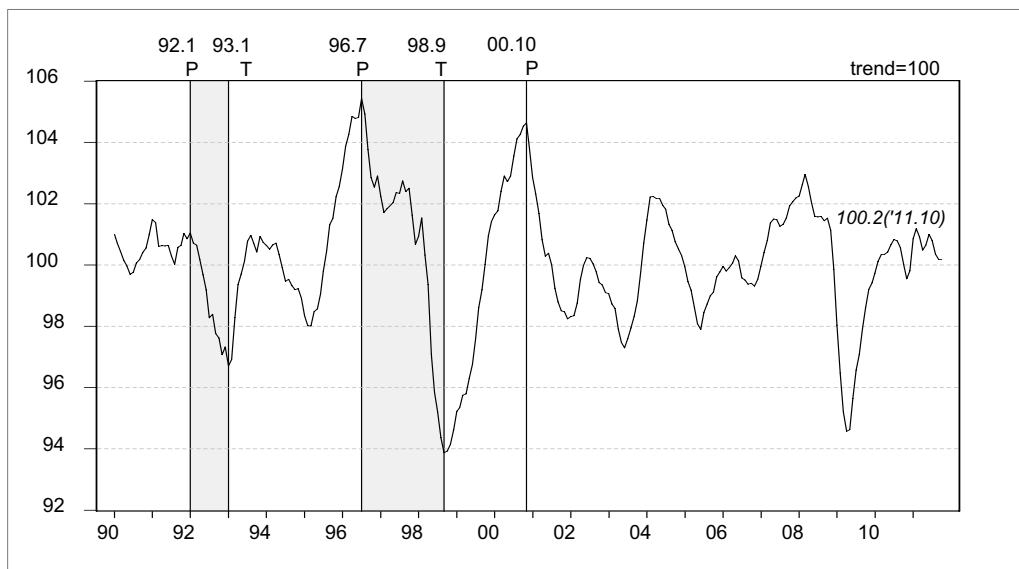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비농가취업자수	0.5	0.3	-0.2	0.3	0.4	-0.1	-0.1	0.2
산업생산지수	-0.3	0.0	1.1	1.7	0.7	-0.9	1.1	0.9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5	-4.4	3.8	3.1	1.6	-1.6	-1.2	0.4
전력사용량	1.0	0.7	1.1	0.9	0.2	0.7	0.5	0.4
수출액(실질)	-0.4	0.1	0.4	-0.4	-2.1	-1.6	0.7	1.0
수입액(실질)	1.4	1.7	2.1	2.9	0.7	3.3	2.0	1.7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12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는 82로 전월(83)보다 1p 하락, 자금사정 전망 BSI는 96으로 전월(95)보다 1p 상승
- 12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7로 전월(78)보다 1p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는 82로 전월(80)보다 2p 상승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 전망은 5월부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 및 환율 등이 기업경기전망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과 함께 인력난·인건비상승 등의 요인으로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경기	90	91	89	87	89	83	82(83)	-1(+1)
매출	111	106	101	101	102	95	95	0
생산	108	107	106	103	103	100	98	-2
신규수주	106	105	98	97	103	96	96	0
채산성	85	87	86	88	86	89	89	0
제품재고	101	103	105	105	102	100	103	+3
인력사정	90	89	93	94	96	96	92	-4
자금사정	96	98	95	100	97	95	96(88)	+1(+3)
외부자금수요	115	116	116	112	116	117	120	+3
자금조달사정	96	96	94	98	67	95	96	+1

주: ()내는 전국 기준.

자료: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경기	85	78	83	80	80	78	77(82)	-1(-2)
매출	92	93	92	88	90	86	90(94)	+4(-1)
채산성	87	91	88	84	90	89	90(88)	+1(-3)
인력사정	87	82	84	82	85	90	88(89)	-2(0)
자금사정	86	84	79	83	83	80	82(87)	+2(-2)
외부자금수요	120	124	130	125	118	119	115	-4
자금조달사정	89	91	89	88	89	89	91	+2

주: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11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업황 체감지수는 전월보다 6.2p 하락한 63.5 기록
 - 상품판매가격(+0.8p), 외상거래비중(+2.6p), 구매고객수(+2.3p)
 - 업황(-6.2p), 매출(-5.7p), 마진(-10.9p), 매입원가(-8.9p), 자금사정(-7.8p)
- 12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전망지수는 대부분 전월보다 하락
 - 상품판매가격(+1.1p), 자금사정(+3.2p), 구매고객수(+21.6p)
 - 업황(-5.9p), 매출(-6.2p), 마진(-1.8p), 매입원가(-4.0p), 외상거래비중(-1.0p)
- 대부분의 체감지수 및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였음. 체감지수 및 전망지수의 하락은 추워진 날씨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소비심리 위축, 대형마트 SSM으로 인한 부정적 원인이 시장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전망)
업황	전국	61.8	53.2	54.4	80.7	60.0	61.7	88.9
	충남	60.1	63.1	65.6	85.5	69.7	63.5	87.3
매출	전국	59.2	52.5	53.4	78.1	60.9	60.6	86.5
	충남	58.3	46.7	58.1	85.3	71.2	65.5	85.7
마진	전국	62.3	54.5	57.2	76.4	65.1	64.9	87.2
	충남	66.6	53.4	63.0	80.8	71.3	60.4	91.2
매입 원가	전국	133.9	137.6	144.7	128.5	134.9	143.2	111.5
	충남	128.8	135.0	145.0	122.1	140.0	131.1	114.4
상품 판매가격	전국	106.9	106.7	112.2	106.8	104.9	112.7	103.2
	충남	104.2	112.2	116.7	104.5	107.5	108.3	106.6
자금 사정	전국	64.0	57.9	59.2	72.3	65.6	64.1	85.9
	충남	67.7	60.6	66.9	77.9	72.8	65.0	89.5
외상 거래비중	전국	100.5	102.3	101.5	100.4	101.3	101.8	100.1
	충남	103.7	101.6	100.5	101.4	98.1	100.7	99.5
구매 고객수	전국	59.7	53.7	55.5	77.8	63.0	62.6	86.5
	충남	59.4	63.0	60.1	84.7	66.1	68.4	87.7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산업생산 동향]

- 10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0.4% 각각 증가
 -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 금속,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산업생산지수	242.7	246.7	247.4	241.5	221.3	238.1	252.8
전년동월비	17.6	13.7	10.5	8.0	-2.8	6.5	4.2
전월비	-0.2	5.3	1.5	-1.3	-7.3	7.6	0.4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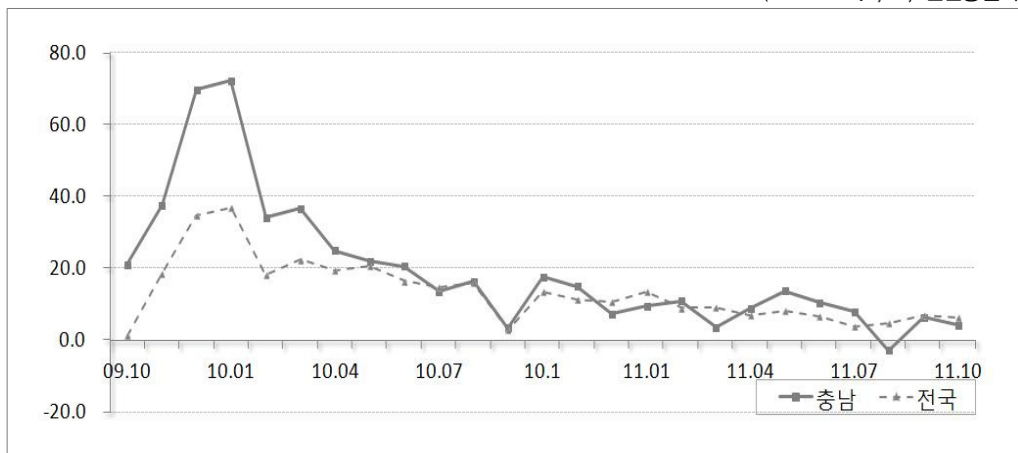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7.7) : TV용LCD, 노트북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등
- 자동차(+14.3) : 대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등
- 제1차금속(+16.3) : 나동선,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철근 등
- 전기장비(+18.5) : 배전반,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전력선, 스위치 등

[감소업종]

- 기계및장비(-22.4) : 열처리로 및 전기로, 금형, 감속기 등
- 화학제품(-7.7) : 에틸렌글리콜, 저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추이

(2005=100.0, %, 전년동월비)



[출하 동향]

- 10월 충남의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0.2% 각각 증가
 -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자동차,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출하지수	221.4	225.2	224.7	213.1	212.5	218.3	228.0
전년동월비	17.2	14.8	9.3	5.1	1.8	4.7	3.0
전월비	-1.9	3.8	-0.5	-1.9	-2.0	3.1	0.2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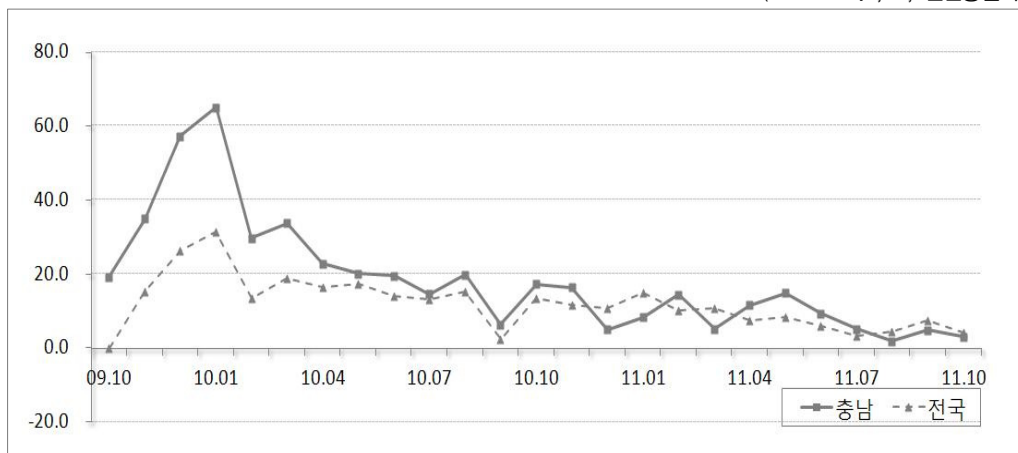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4.7) : TV용LCD, 노트북용LCD, 모스조립, 기타모스비메모리 등
- 제1차금속(+22.1) : 열연대강, 나동선, 철근, 냉연강대, 강관 등
- 자동차(+13.5) : 대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등
- 석유정제품(+9.3) : 휘발유, 제트유, 경유,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등

[감소업종]

- 기계및장비(-28.9) : 열처리로 및 전기로, 금형, 감속기 등
- 금속가공제품(-4.5) : 건물용금속공작물, 새시문 및 창틀, 식관 단조물 등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추이

(2005=100.0, %, 전년동월비)



[재고 동향]

- 10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8%, 전월대비 3.0% 각각 증가
 - 석유정제품,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섬유제품,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재고지수	167.5	209.7	223.0	262.0	248.9	256.2	269.4
전년동월비	35.4	34.9	38.1	49.7	46.2	64.4	60.8
전월비	6.7	3.8	7.7	13.1	-3.0	6.2	3.0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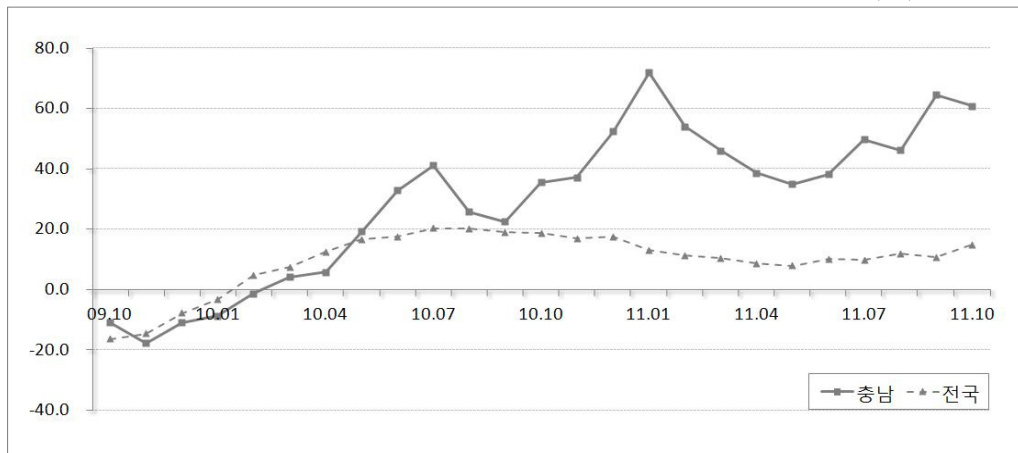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75.7) : TV용LCD, 포토마스트, 모니터용LCD, 방송용증폭기
- 제1차금속(+42.6)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갈바늄강판 등
- 섬유제품(+117.0) : 자동차용커버, 면사, 합성섬유직물, 원단편조물 등
- 식료품(+38.3) : 홍삼, 건강보조식품, 밀가루, 고추장, 김치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14.1) : 나프타, 제트유, 벙커C유, 등류, 석유아스팔트 등
- 종이제품(-25.5) : 백상지, 아트지, 크라프트지, 사무기기용원지, 벽지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추이

(2005=100.0, %, 전년동월비)



3. 소비 · 물가

[소비]

- 10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24,308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7% 증가, 전월대비 2.6% 감소, 지수는 178.3을 나타냄
-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증가로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 전월대비 12.2% 감소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3.1) : 가전제품(+13.3), 가구(-3.3), 컴퓨터(-18.9)
- 준내구재(+4.7) : 운동·오락(+9.2), 의복(+4.7), 신발(+3.1)
- 비내구재(-18.8) : 의약품(-23.5), 음식료품(-21.2), 화장품(-14.6)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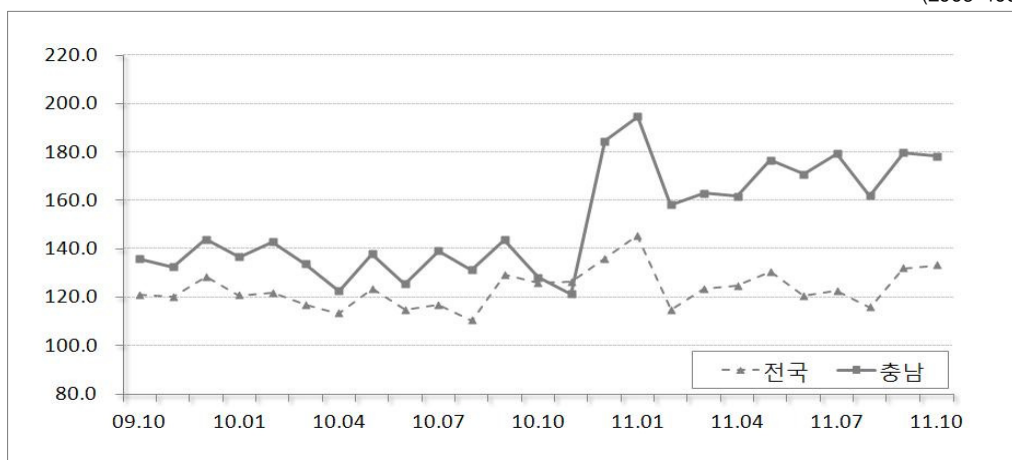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o	10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5,123,237	5,102,874	4,884,098	5,611,633	5,548,943	8.3	-1.1	
충 남	87,095	124,762	114,166	127,612	124,308	42.7	-2.6	
대형마트	61,530	84,338	79,742	82,798	72,708	18.2	-12.2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11월 충남의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68,047대로 전월대비 0.2%(1,996대) 증가, 전년 동월대비 4.1%(34,556대) 각각 증가
 - 차종별로는 전월대비 승용차(+0.3%), 특수화물(+0.1%), 화물(+0.1%) 등록대수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1.2%) 등록대수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5.4%), 화물차(+1.6%), 특수화물차(+8.1%) 등록대수는 각각 증가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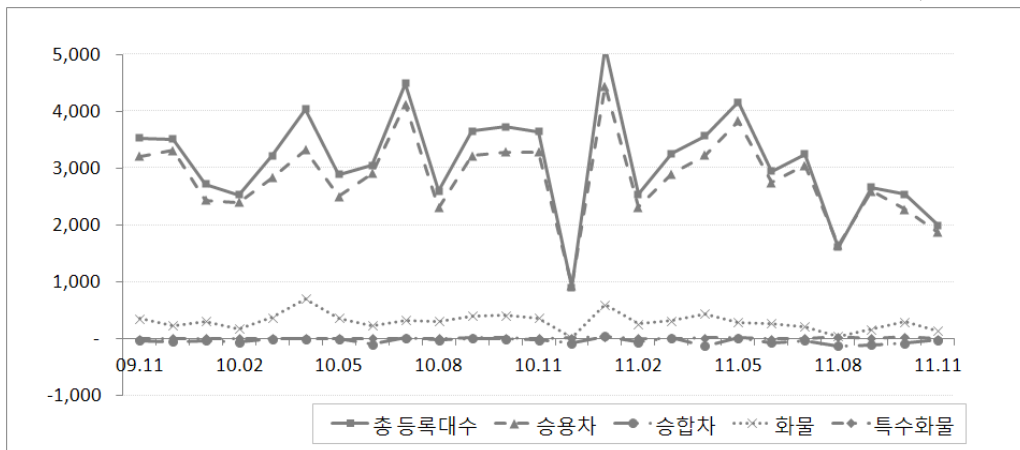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0년	2011년				증 감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33,491	860,844	863,512	866,051	868,047	34,556	1,996
차 종 별	승용	586,724	611,828	614,423	616,701	618,572	31,848	1,871
	승합	50,473	50,087	49,980	49,905	49,885	-588	-20
	화물	193,666	196,139	196,305	196,607	196,748	3,082	141
	특수화물	2,628	2,790	2,804	2,838	2,842	214	4
용 도 별	자가용	795,305	820,704	823,255	825,606	827,454	32,149	1,848
	관용	3,851	4,032	4,008	4,024	4,030	179	6
	영업용	34,335	36,108	36,249	36,421	36,563	2,228	142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물가]

- 11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농축산물(+6.4%), 공업제품(+6.7%), 집세(+4.2%), 공공서비스(+1.5%), 개인서비스(+3.1%)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5.1로 전월대비 0.1% 감소,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99.9로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6.4%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4.2%, 신선과실 3.4% 증가, 신선채소 24.8% 감소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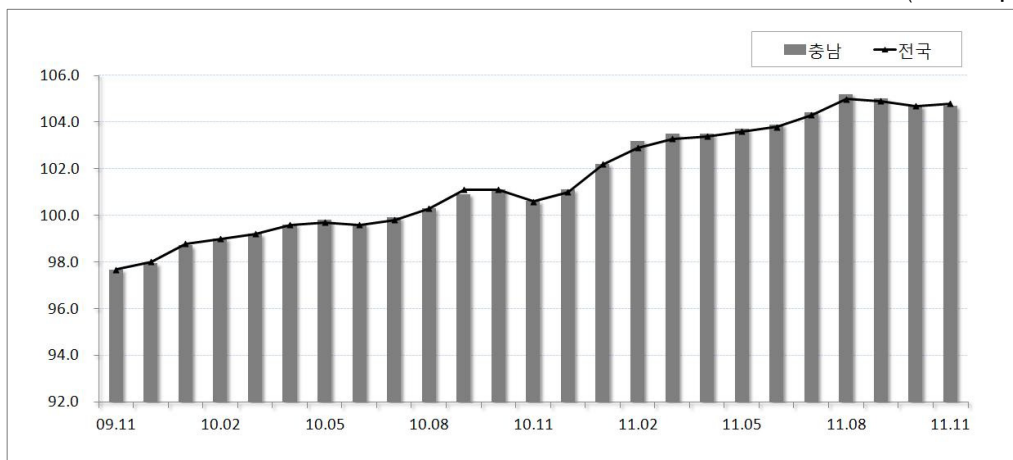
(2010=100.0,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0.6	105.0	104.9	104.7	104.8		4.2	0.1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0.6	105.2	105.0	104.7	104.7		4.1	0.0
상품 성질별	상 품		100.7	107.7	107.6	106.9	107.1		6.4	0.2
	서비스		100.5	102.6	102.4	102.6	102.5		2.0	-0.1
생활물가지수			100.5	105.8	105.7	105.2	105.1		4.6	-0.1
신선식품지수			106.7	116.7	112.3	103.5	99.9		-6.4	-3.5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10월 충남의 수출은 반도체 및 석유제품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1.0%, 전월대비 2.0%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55억42백만달러)하여 증가세 지속(+13.3%→+11.0%)
 - 석유제품(+48.0%), 전자응용기기(+287.3%) 등의 증가가 수출 증가세에 기인
- 10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9.6% 증가한 반면 전월에 비해 11.5% 감소
 - 원유(+69.2%), 석유제품(+38.0%) 등의 증가로 인해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44.0%→+39.6%)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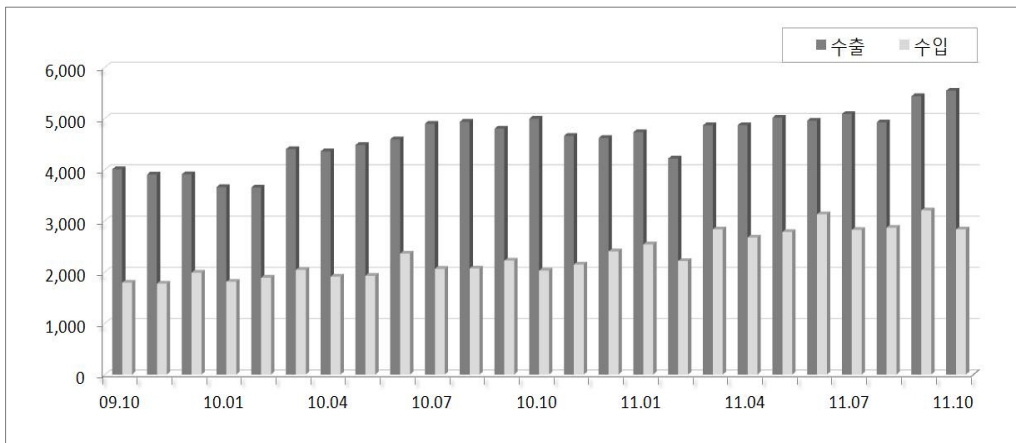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p	10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3,340	48,918	45,769	46,546	46,822	8.0	0.6
	수입	37,001	44,293	45,381	45,265	42,755	15.6	-5.5
	무역수지	6,339	4,625	388	1,281	4,067	-	-
충남	수출	4,994	5,088	4,925	5,435	5,542	11.0	2.0
	수입	2,031	2,825	2,867	3,205	2,835	39.6	-11.5
	무역수지	2,963	2,263	2,058	2,230	2,707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0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5,542	11.0	2.0	100.0
1	반도체	1,651	8.6	-9.1	29.8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83	-18.6	-2.1	21.3
3	석유제품	450	48.0	12.5	8.1
4	전자응용기기	345	287.3	42.0	6.2
5	컴퓨터	240	52.7	13.7	4.3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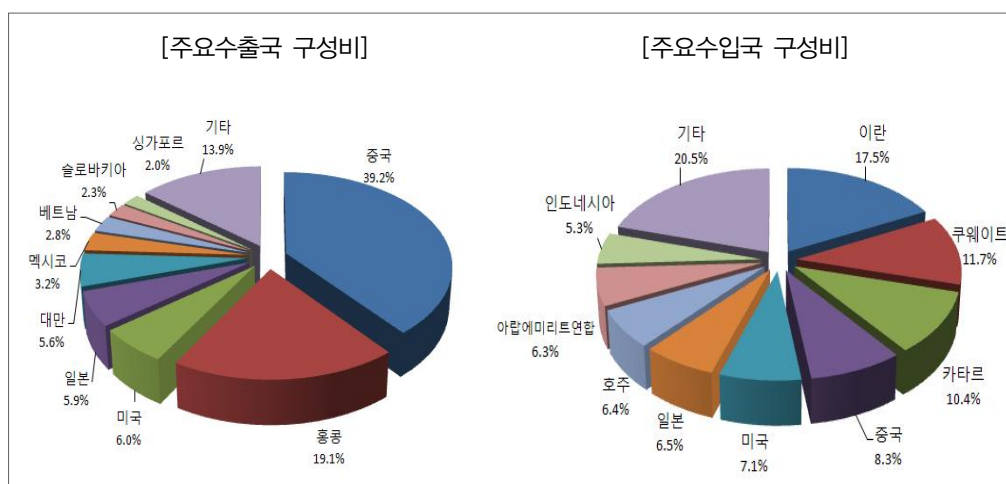
10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835	39.6	-11.5	100.0
1	원유	1,294	69.2	-18.0	45.6
2	석탄	293	-2.4	-24.1	10.3
3	석유제품	270	38.0	-10.3	9.5
4	기타정밀화학제품	75	562.5	733.3	2.6
5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71	126.2	-19.3	2.5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0월 국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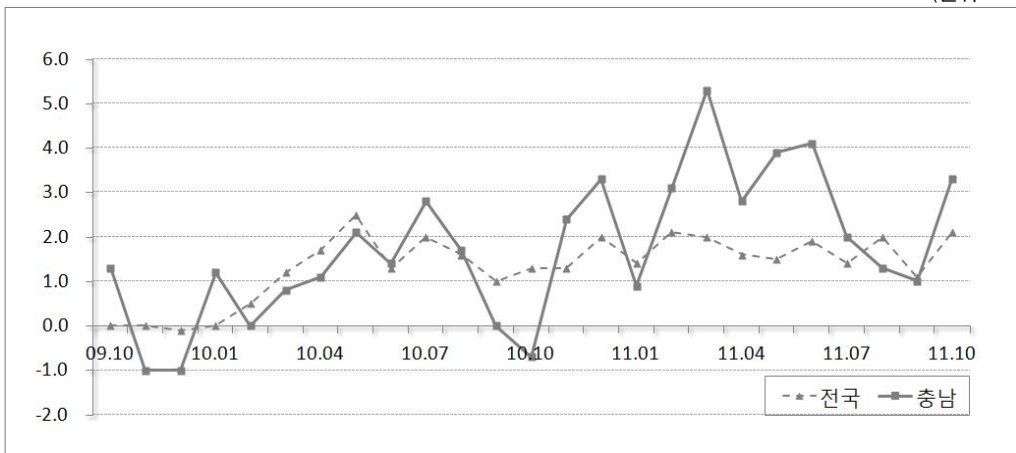
- 10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1%,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653천명으로 전년동월(1,620천명)보다 33천명(+2.1%)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66천명으로 전년동월(1,033천명)보다 33천명(+3.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취업자]

- 10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전월대비 2.2% 각각 증가
 - 농림어업 189천명(-4.0%), 광공업 213천명(+1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36천명(+2.9%)으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10월 충남의 실업자는 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2.7%)대비 0.1%p 감소한 2.6%

6. 금 용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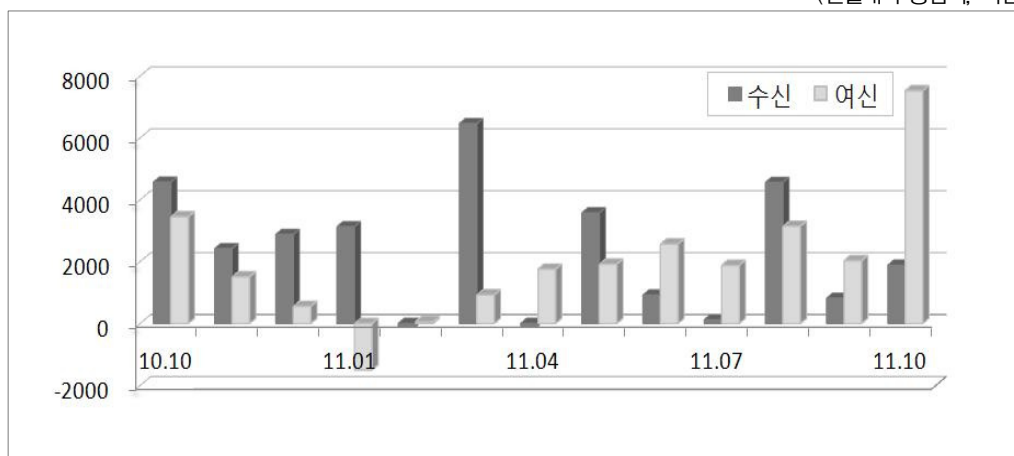
- 10월말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6조 2,668억원, 비은행기관 29조 1,155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5조 3,823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시장성수신일 늘어나고 기업 자유예금의 증가로 예금은행 수신 증가폭 확대 [9월 +300억원 → 10월 +1,016억원]
 - 비은행기관 : 전월의 저축은행 수신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및 상호금융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로 수신 증가폭 확대 [9월 +513억원 → 10월 +865억원]
 - 총 수신증감액 : 9월 +813억원 → 10월 +1,881억원

[여신]

- 10월말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4조 1,851억원, 비은행기관 16조 1,415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0조 3,266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나 예금은행 여신 증가폭 크게 확대 [9월 +1,102억원 → 10월 +5,866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됨 [9월 +927억원 → 10월 +1,654억원]
 - 총 여신증감액 : 9월 +2,029억원 → 10월 +7,520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10월 충남의 부도율은 0.39%로 전월대비 0.11%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0.61%, 홍성 0.06%, 논산 0.13%, 공주 1.93%, 서산 0.00%를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연중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17	0.07	0.19	0.18	0.28	0.39	0.11	0.32
천 안	0.19	0.02	0.34	0.27	0.14	0.61	0.47	0.59
홍 성	0.33	0.01	0.00	0.06	0.31	0.06	-0.25	0.05
논 산	0.20	0.74	0.22	0.15	0.00	0.13	0.13	-0.61
공 주	0.02	0.02	0.00	0.65	3.67	1.93	-1.74	1.91
서 산	0.05	0.04	0.00	0.02	0.01	0.00	-0.01	-0.04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10월 중 부도금액은 43억 3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5억4천만원 증가
 - 제조업 : 9월 9억 8천만원 → 10월 6억 2천만원
 - 건설업 : 9월 16억 5천만원 → 10월 28억 8천만원
 - 서비스업 : 9월 1억 3천만원 → 10월 8억 2천만원
- 10월 중 부도업체수는 2개로 전월(2개)과 동일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1.2	15.5	15.9	9.8	6.2	5.0	-3.6
	건설업	0.0	0.0	3.3	16.5	28.8	28.8	12.3
	서비스업	3.5	2.0	1.4	1.3	8.2	4.7	6.9
	기타	1.9	0.0	0.3	0.3	0.1	-1.8	-0.2
	합계	6.6	17.5	20.9	27.9	43.3	36.7	15.4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0	2	0	0	0.0	0.0
	건설업	0	0	0	1	1	1.0	0.0
	서비스업	0	2	1	1	1	1.0	0.0
	기타	0	0	0	0	0	0.0	0.0
	합계	0	2	3	2	2	2.0	0.0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10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148개로 전월(170개)보다 22개 감소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10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1,518,020㎡로 전월대비 70.1%, 전년동월대비 245.2% 각각 증가
 - 10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53.0%), 공업용(10.3%), 상업용(9.3%)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439,713	522,989	1,504,930	892,461	1,518,020	245.2	70.1	
주거용	104,092	136,561	694,570	425,156	804,539	672.9	89.2	
상업용	76,616	97,719	150,254	92,838	141,756	85.0	52.7	
농수산용	58,799	81,497	58,844	73,490	68,801	17.0	-6.4	
공업용	137,978	133,060	294,007	181,605	155,682	12.8	-14.3	
기 타	62,228	74,152	307,255	119,372	347,242	458.0	190.9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10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1,290,749㎡로 전월대비 75.0%, 전년동월대비 177.7% 각각 증가
 - 10월 착공면적 구성비 : 주거용(39.3%), 공업용(12.2%), 상업용(10.7%)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464,780	427,285	456,491	737,453	1,290,749	177.7	75.0	
주거용	114,272	107,001	117,547	224,715	506,793	343.5	125.5	
상업용	68,008	82,105	75,662	97,112	137,745	102.5	41.8	
농수산용	65,632	67,075	49,472	54,059	91,089	38.8	68.5	
공업용	161,818	112,518	153,685	276,635	157,273	-2.8	-43.1	
기 타	55,050	58,586	60,125	84,932	397,849	622.7	3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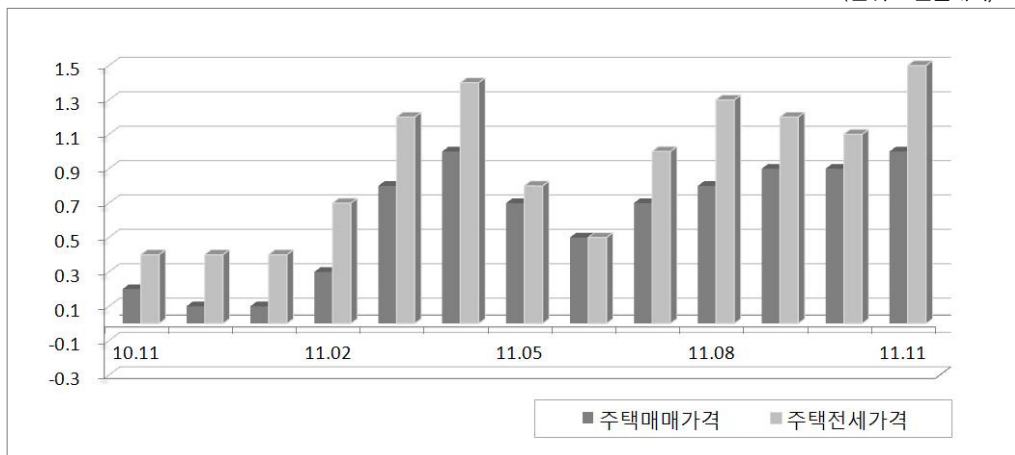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11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104.4로 전년동월대비 8.1%, 전월대비 1.0% 각각 상승
 - 가을 이사철의 영향 및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아산(+1.3%), 천안 동남구(+1.0%) 지역이 주요 상승지역이며, 아파트 및 단독·연립 주택 모두 상승
- 11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106.2로 전년동월대비 12.1%, 전월대비 1.5% 각각 상승
 - 아산의 탕정산업단지, 당진 현대제철 관련 근로자 유입 등 수요가 꾸준하였으며,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2.1%), 천안 동남구(+1.1%) 지역이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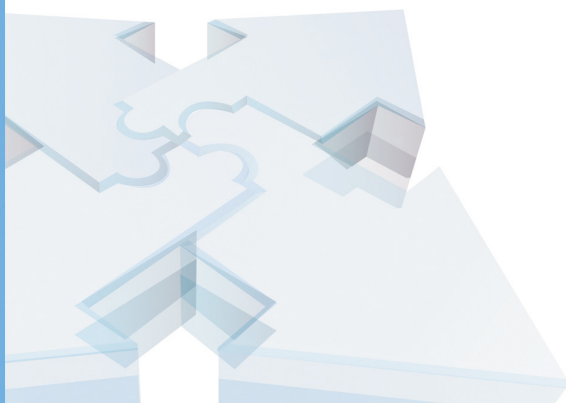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1.11.14] 당진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

- 13일 당진군이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 선도도시로 지정, 보급 여건을 갖춘 지역에 전기자동차를 집중 보급,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거점육성 전략추진
- 앞으로, 4년간 정부로부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200여대(고속의 경우 1대당 4천만원 상당) 등 4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EV 선도도시에 따른 (정부의) 총 사업비는 105억원

['11.11.16] 사회적기업 육성 교육컨설팅 참가자 모집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참가자 모집
-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은 충남도내 영농법인 4,000여개를 전수조사하여 이중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전환을 희망하는 100여개의 영농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법인·관계자와 일반인도 참석

['11.11.16] 해삼 특화단지 2020년까지 360억 투입

- 해삼을 고 부가가치 명품 산업으로 육성, 1조원대 중화권 해삼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
- 태안(보령 도서 일부 포함)에 조성 계획인 해삼 특화단지는 종묘 생산기술 등 3대 분야 10개 사업
- 사업 내용은 ▲ **종묘 생산기술 개발**(내년부터 3년간 매년 5억씩 투자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2개 사업 추진) ▲ **대량 생산기반 구축**(씨뿌림 양식단지(6개소) 조성 사업에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65억원을, 축제식 양식단지(5개소) 조성 사업은 2013~2020년 100억원, 육상 양식단지(5개소) 조성 사업에는 2013~2020년 50억원을 투입) ▲ **수출 가공기반 구축**(가공식품 개발 R&D 지원(5억원)과 전문 가공업체 육성(3개소, 60억원), 바이오 산업 육성 R&D 지원(5억원), 유통 및 수출 지원(5개소, 10억원)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등

['11.11.17] 2011 산학연관 합동세미나 개최

- 세미나를 통해 산(産), 학(學), 연(研), 관(官)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道 및 시·군 경제관련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1부 합동대토론은 「충남 내발적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혁신방안」에 대하여 2부(오후)에서는 9개 경제통상실 각종 현안사항을 주제로 분임토의 진행

['11.11.21]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제3차 공개모집

- 11. 5 ~ 12. 5일까지 15일간 2011년 제3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응모 자격은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이며 재정 지원 사업 공모심사를 통과할 경우 1개 기업(단체)당 5~10명의 인건비와 3천만원 이내의 사업개발비 지원

['11.11.22] 2012년 국도비지원 축제 선정 심사

- 제3차 축제육성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2012년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7개 축제 추천
- 7개 축제는 올해의 기존 4개 문화관광축제로 당연 추천 대상인 ▲천안 홍타령춤 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발효젓갈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예산 옛이야기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홍성 내포문화제가 이번 심의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추가

['11.11.25] 유통구조 개선 2014년까지 195억 투자

-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까지 총 195억원을 투자계획
-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내 축산물유통판매시설 13개소에 80억원이 투입되며, 도축장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 사업을 7개소에 70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고,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에 위치한 (주)홍주미트에는 45억원을 들여 공판장 설치예정

['11.11.29] 내년 61억 투입 어선 87척 줄여

- 총 61억원(국비 52억8천만원 포함)을 투입해 내년 도내 연근해 어선 87척을 감척기로 계획
-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이번 사업은 올해 24척 20억7천600만원에 비해 40억2천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상은 연안어선 82척(41억원)과 근해 어선 5척(20억원)

['11.11.30]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채용' 대폭 늘려

-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 공업·농업·해양수산 분야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인원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30일 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확대와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내용은 ▲지방공무원 기능인재 추천제 도입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선발 ▲고졸 채용 목표제 시행 ▲기업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확대 ▲고졸 기술인력 취업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여건 조성 등도 적극 추진 ▲일자리지원센터와 취업지원센터 활동을 연계,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및 특성화고-기업간 취업 촉진 등

['11.12.5] 충남 동반성장협의회 개최

-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안지사 및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명 참석 진행
- 정운찬 위원장의 특강 후 5개 대기업 사례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신기술 공모펀드 1천억원 출연(8월)과 천안 신화인터텍 등 글로벌 강소기업 28개사 육성 소개 ▲현대자동차는 동반성장 펀드 조성(6월, 980억) ▲삼성토탈은 현금결제 횟수 상향(월 2회→3회) ▲동부제철은 협력사 구매조건부 계약(107억) ▲GS건설은 거래대금 결제조건 개선(월1회→3회) 및 자금지원(304억) 등의 우수사례 발표

['11.12.8] 내발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 불어 닥친 양극화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이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본 동경농공대학 센가 유타로 교수의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내발적 발전”, 중국인민대학교 왕지강 교수의 “지역재개발(CRR)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방법 연구”, 필리핀 마닐라대학교 저멜리노 M. 바티스타 교수의 “필리핀 농업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연구실장, 공주대 정환영 교수, 서울대 최영찬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임

['11.12.7] 2011하반기 충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9개국 36개 업체 39명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
-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유럽 등 9개국 41명의 바이어가 초청되었고,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중소 수출기업 100여 개 사가 상담에 참가하여 바이어들과 1:1 판매상담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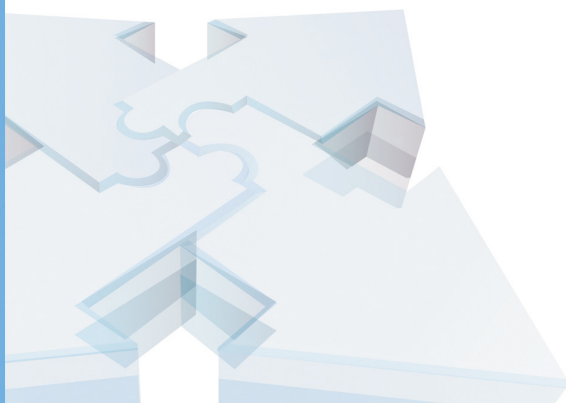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2012년 한국기업의 5대 경영이슈
 -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 소득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 글로벌 금융 불안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소 : <http://hri.co.kr>
 -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프랑스로 위기확산 가능성 커
 -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원인과 시사점
 -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 LG경제연구소 : <http://www.lgeri.com>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장수의 축복이 위험이 되지 않도록
 - 고용 늘었지만 자영업·고령노동이 대부분
 - 잘되는 사업에서도 철수하는 지혜, SMART EXIT
 -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 고용변동성 키운다
 - 일본의 TPP 참가선언, 동아시아 FTA환경의 새 변수
 - 경영 환경 어려울수록 구성원의 마음 먹어야
 - 새로운 IT강자, 버블을 먹고 자란다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 금융·통신·유통의 바람직한 컨버전스 전략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 유럽 지역의 수위탁 거래 특징과 시사점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
 -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미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가능성 평가
 - 최근 미국 은행산업의 리스크 요인 분석
 - 중국 부동산가격의 평가 및 전망
 - 주요 신흥경제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기업의 경쟁력 채용 및 활용현황 조사
 - 중국진출 서비스기업 경영실태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28,034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101,342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31,234
1인당 GNI ¹⁾	억원	1,884	2,016	2,128	2,195	2,400
경제성장률	%	5.2	5.1	2.3	0.3	6.2
산업구조						
농림어업	%	3.2	2.9	2.7	2.8	2.6
광공업		27.4	27.5	28.1	28.0	30.8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2	1.3	1.8	2.0
건설업		7.5	7.4	7.0	6.9	6.5
서비스업 및 기타		59.7	60.0	60.8	60.4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1	80.3	77.6	74.4	81.2
취업자	천명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농림어업	%	7.7	7.4	7.2	7.0	6.6
광공업		17.6	17.2	16.9	16.4	17.0
건설업		7.9	7.9	7.7	7.3	7.4
서비스업 및 기타		66.5	67.2	67.9	69.3	69.1
실업률 (ILO기준)	%	3.5	3.2	3.2	3.6	3.7
경상수지		14,083	21,770	3,198	32,791	28,214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1,433	37,129	5,170	37,866	41,904
서비스수지		△13,332	△11,967	△5,734	△6,641	△11,229
소득수지		75	135	4,435	2,277	768
경상이전수지		△4,092	△3,527	△674	△712	△3,229
수출액	억달러	3,254	3,715	4,220	3,635	4,664
수입액		3,094	3,568	4,353	3,231	4,252
총저축률	%	30.8	30.8	30.5	30.2	32.0
민간비중	%	20.8	20.2	21.2	23.4	25.2
정부비중		10.0	10.6	9.3	6.8	6.8
총자본형성	십억원	268,216	277,729	277,773	240,412	277,460
최종소비지출	%	69.0	69.1	70.0	70.1	67.8
민간비중	%	54.5	54.4	54.7	54.1	52.5
정부비중		14.5	14.7	15.3	16.0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0.9	1.4	8.6	-0.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2.5	4.7	2.8	2.9

주 : 1) 당해년 경당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 경제지표 (2011.12.1기준) 금리

구 분	'09말	'10말	'11.10말	11.29	11.30	12.1	전일비	'10말비
콜금리(1일),%	2.01	2.49	3.23	3.26	3.25	3.27	0.02	0.78
CD(91일),%	2.86	2.80	3.57	3.55	3.55	3.55	0.00	0.75
국고채(3년),%	4.41	3.38	3.51	3.43	3.38	3.38	0.00	0.00
국고채(5년),%	4.92	4.08	3.63	3.54	3.49	3.50	0.01	△0.58
회사채(3년, AA-),%	5.53	4.27	4.35	4.27	4.22	4.23	0.01	△0.04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 억원)	707	△1,488	561	641	△1,057	△388	669	1,100

주가

구 분	'09말	'10말	'11.10말	11.29	11.30	12.1	전일비	'10말비
KOSPI지수	1,682.77	2,051.00	1,909.03	1,856.52	1,847.51	1,916.18	3.72%	△6.57%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42,856	53,969	1,909.03	63,370	65,027	92,790	27,763	38,821
KOSDAQ지수	513.57	510.69	64,332	492.73	492.81	496.33	0.71%	△2.81%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01,052	223,405	490.69	△34,102	△30,589	6,261	36,850	

※ 기간중 : '09말('09.1.1~12.31), '10말('10.1.1~12.31), '11.10말('11.10.1~10.31), 12.1('11.12.1).

환율

구 분	'09말	'10말	'11.10말	11.29	11.30	12.1	전일비	'10말비
₩/US\$	1,164.50	1,134.80	1,110.00	1,145.40	1,143.00	1,126.10	1.50	0.77
선물환(NDF, 1월)	1,165.90	1,137.00	1,112.70	1,147.90	1,145.70	1,128.80	1.50	0.73
₩/CNY	169.47	170.43	174.70	179.58	179.10	176.84	1.28	△3.62
₩/EUR	1,668.15	1,501.68	1,553.45	1,530.48	1,523.50	1,515.17	0.55	△0.89
₩/¥100	1,264.52	1,393.59	1,397.98	1,467.33	1,467.83	1,449.48	1.27	△3.86
¥/US\$	92.09	81.43	79.40	78.06	77.87	77.69	0.23	4.81
US\$/EUR	1,4325	1,3233	1,3995	1,3362	1,3329	1,3455	0.95	1.68
CNY/US\$	6.8279	6.6100	6.3538	6.3792	6.3666	6.3665	0.00	3.82

※ '10년 평균 환율 : (₩/US\$) 1,156.3원, (₩/¥100) 1,320.6원

※ '11년 평균 환율('11.1.1~현재) : (₩/US\$) 1,104.4원, (₩/¥100) 1,384.3원

※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의 외환거래 증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9말	'10말	'11.10말	11.29	11.30	12.1	전일비	'10말비
LIBOR(3월, \$)	0.25	0.30	0.43	0.53	0.53	0.53	0.00	0.23
T/NOTE(10년물)	3.83	3.29	2.11	2.00	2.08	2.10	0.02	△1.21
DOW	10,428	11,578	11,955	11,556	12,046	12,020	-0.21%	4.04%
NIKKEI	10,546	10,229	8,988	8,478	8,435	8,597	1.93%	△15.95%
SANGHAI COMP	3,277	2,808	2,468	2,409	2,334	2,387	2.28%	△15.00%
외평채가산금리(bp, 2013년분)	59	175	144	156	153	153	0	△22
CDS(5년, bp)	86	95	137	164	150	151	1	55
CRS(1년, %)	2.25	1.43	1.77	1.75	1.73	1.82	0.09	0.39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09말	'10말	'11.10말	11.29	11.30	12.1	전일비	'10말비
DUBAI(\$/배럴)	78.04	88.80	105.80	107.18	107.35	108.26	0.91	19.46
WTI 선물(\$/배럴)	94.75	94.84	93.19	98.21	99.79	100.36	0.57	5.52
Brent 선물(\$/배럴)	77.93	94.75	109.56	109.00	110.82	110.52	△0.30	15.77
원당(센트/파운드)	26.95	32.12	25.77	23.12	23.49	23.69	0.85%	△26.25%
밀(센트/부셸)	542	794	628	593	616	614	△0.32%	△22.69%
대두(센트/부셸)	1,049	1,403	1,217	1,121	1,125	1,131	0.56%	△19.37%
옥수수(센트/부셸)	415	629	647	592	606	608	0.41%	△3.34%
동(\$/톤)	7,377	9,665	7,922	7,401	7,471	7,430	△0.55%	△23.12%
알루미늄(\$/톤)	2,242	2,468	2,209	2,019	2,006	1,988	△0.90%	△19.45%

※ '10년 평균 유가 : (Dubai) 78.13\$, (WTI) 79.61\$, ※ '11년 평균 유가('11.1.1~현재) : (Dubai) 106.14\$, (WTI) 94.98\$.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13,613	551,484	579,740	651,338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85	5.96	6.21	6.71	—
GRDP 성장률 ²⁾	%	12.6	7.6	7.0	8.9	—
1인당 GRDP	만원	2,664	2,848	2,983	3,370	—
산업구조	—					
농림어업	%	7.6	6.9	7.2	6.6	—
광공업		47.2	49.2	49.8	53.4	—
전기가스수도업		3.8	4.3	4.8	5.0	—
건설업		8.8	7.9	8.2	7.3	—
서비스업 및 기타		32.5	31.6	30.1	27.8	—
15세이상인구	천명	1,517	1,547	1,564	1,588	1,613
경제활동인구	천명	991	1,021	996	991	1,003
취업자	천명	967	998	973	961	974
농림어업	%	23.6	21.9	19.5	18.8	16.8
광공업		15.5	17.0	17.4	17.1	19.0
건설업		5.8	6.6	5.7	5.8	5.6
서비스업 및 기타		55.1	54.5	57.3	58.3	58.5
실업자	천명	24	23	24	29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26	568	597	610
경제활동참가율	%	65.3	66.0	63.7	62.4	62.2
실업률	%	2.4	2.2	2.4	3.0	2.9
고용률	%	63.8	64.5	62.2	60.5	60.4
무역수지	백만달러	16,599	21,149	13,380	20,299	29,161
수출액	백만달러	38,961	47,823	42,936	39,428	54,054
수입액		22,362	26,674	29,556	19,129	24,893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4	4.9	2.7	3.0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¹⁾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천안시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공주시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보령시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아산시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서산시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논산시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계룡시 ¹⁾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금산군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연기군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부여군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서천군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청양군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홍성군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예산군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태안군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당진군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충청남도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주 : 1) 당해년가격 2)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8 10	122.4	0.4	2.7	3.3	101.5	0.1
11	122.2	-0.1	2.0	2.8	101.1	-0.4
12	121.0	-1.0	-0.3	1.4	99.8	-1.3
2009 01	119.2	-1.5	-3.3	-0.5	98.0	-1.8
02	117.6	-1.3	-5.5	-2.1	96.4	-1.5
03	116.5	-1.0	-6.9	-3.4	95.2	-1.3
04	116.1	-0.3	-6.9	-4.0	94.6	-0.6
05	116.5	0.4	-5.6	-3.9	94.6	0.1
06	118.2	1.4	-2.5	-2.6	95.7	1.0
07	119.7	1.3	0.3	-1.3	96.6	0.9
08	120.8	0.9	2.1	-0.2	97.2	0.5
09	122.3	1.2	4.6	1.4	98.0	0.9
10	123.6	1.1	6.7	2.9	98.8	0.7
11	124.8	1.0	8.5	4.2	99.4	0.6
12	125.6	0.6	9.3	5.1	99.6	0.3
2010 01	126.5	0.7	10.2	6.0	100.0	0.4
02	127.5	0.8	10.7	6.9	100.4	0.4
03	128.4	0.6	10.7	7.5	100.7	0.3
04	128.9	0.4	9.9	7.9	100.7	0.0
05	129.6	0.5	9.1	8.3	100.8	0.1
06	130.4	0.7	8.7	8.6	101.1	0.3
07	131.2	0.6	8.3	8.7	101.4	0.2
08	131.8	0.4	7.6	8.4	101.4	0.0
09	132.1	0.2	6.6	7.8	101.2	-0.2
10	131.9	-0.1	5.2	6.8	100.7	-0.5
11	131.9	-0.0	4.1	5.8	100.1	-0.4
12	132.8	0.7	4.6	5.7	100.2	0.1
2011 01	134.8	1.5	6.5	6.4	101.3	1.1
02	135.8	0.8	7.0	6.5	101.5	0.1
03	136.1	0.2	6.3	6.0	101.1	-0.4
04	136.1	0.0	5.4	5.4	100.5	-0.5
05	136.9	0.6	5.7	5.6	100.7	0.1
06	138.0	0.8	6.3	5.9	101.0	0.4
07	138.3	0.3	5.9	5.6	100.8	-0.2
08	138.3	-0.0	5.0	5.1	100.4	-0.4
09	138.7	0.3	4.7	4.9	100.2	-0.2
10	139.3	0.4	4.8	4.8	100.2	0.0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는 부록 참조.

시장경기동향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8	57.6	85.8	58.8	84.3	52.9	72.9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0 3/4	80.6	94.8	79.8	96.1	76.9	89.3
4/4	73.0	95.6	73.8	96.3	70.6	93.3
2011 1/4	54.8	91.9	53.6	90.7	64.3	90.5
2/4	71.8	95.7	67.6	100.0	69.6	93.5
3/4	71.4	95.8	63.4	94.2	68.5	91.0
2008 11	91.7	86.9	82.1	91.7	82.1	88.1
12	71.4	85.7	61.9	82.1	65.5	79.8
2010 01	52.4	78.6	45.2	76.2	57.1	76.2
02	64.3	97.5	70.2	95.1	66.7	76.9
03	66.7	107.7	59.5	107.7	69.0	87.5
04	71.4	105.1	70.2	105.3	71.4	96.2
05	69.0	94.0	58.3	96.1	70.2	87.2
06	59.5	78.8	57.1	75.0	59.5	78.9
07	66.7	73.8	60.7	76.2	70.0	82.9
08	77.4	85.0	75.0	86.5	73.8	82.5
09	97.6	125.6	103.6	125.6	86.9	102.4
10	66.7	114.3	67.9	121.3	69.0	103.8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	87.3	-	85.7	-	89.5

자료 : 월간 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0 3/4	277,463	11.9	9.0	218,408	17.9	16.1
4/4	293,129	10.0	5.6	194,620	7.8	-10.9
2011 1/4	355,080	31.5	21.1	225,657	15.2	15.9
2/4	350,384	37.7	-1.3	222,694	18.4	-1.3
3/4	366,540	32.1	4.6	246,878	13.0	10.9
2008 10	87,796	11.4	3.8	58,930	9.1	-1.8
11	85,471	1.2	-2.6	57,330	-0.1	-2.7
12	93,315	8.5	9.2	64,231	6.2	12.0
2010 01	88,900	-1.3	-4.7	63,066	-6.5	-1.8
02	93,492	30.5	5.2	70,492	38.0	11.8
03	87,608	5.2	-6.3	62,254	4.2	-11.7
04	81,181	3.9	-7.3	58,341	6.4	-6.3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08	42.7	-2.6	72,708	18.2	-12.2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8 11	761,629	-	1,789	521,755	50,515	186,892	2,467
12	762,287	29,393	658	522,574	50,504	186,751	2,458
2009 01	765,469	27,740	3,182	525,564	50,562	186,879	2,464
02	767,231	26,776	1,762	527,267	50,542	186,974	2,448
03	769,205	25,176	1,974	529,048	50,529	187,188	2,440
04	771,889	24,665	2,684	531,278	50,660	187,512	2,439
05	774,965	24,922	3,076	533,905	50,693	187,921	2,446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10	116.7	3.0	118.7	3.4	126.8	22.5	116.8	2.9	116.3	3.5	116.6	3.0
2010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4/4	118.2	3.7	120.1	3.9	142.3	43.6	118.3	3.5	117.7	3.9	118.2	3.9
2011 1/4	120.3	4.5	122.6	4.8	142.2	27.9	120.3	4.4	120.1	4.7	120.6	4.8
2/4	121.1	4.1	122.7	3.7	128.7	6.6	121.1	3.9	120.5	3.9	121.4	4.7
3/4	122.8	4.7	124.5	4.4	142.0	6.8	122.8	4.6	122.3	4.6	123.0	5.0
2009 11	97.7	2.6	97.3	2.5	97.7	2.6	97.7	2.7	97.4	2.5	97.7	2.5
12	97.9	3.1	97.7	3.8	97.9	3.1	98.1	3.1	97.7	3.1	97.812	3.0
2010 01	98.7	3.8	98.4	4.4	98.7	3.8	98.7	3.7	98.6	4.0	98.7	3.6
02	99.0	3.3	98.8	3.9	99.0	3.3	99.0	3.3	98.9	3.4	99.0	3.0
03	99.2	2.6	99.1	2.9	99.2	2.6	99.1	2.3	99.4	3.2	99.4	2.8
04	99.6	2.7	99.8	3.1	99.6	2.7	99.7	2.7	99.7	3.3	99.6	2.5
05	99.8	2.9	100.0	3.4	99.8	2.9	99.9	2.8	99.8	3.7	99.6	2.6
06	99.6	2.6	99.6	2.9	99.6	2.6	99.7	2.5	99.7	3.7	99.5	2.5
07	99.9	2.5	99.8	2.6	99.9	2.5	100.0	2.4	99.9	3.2	99.9	2.5
08	100.3	2.7	100.3	2.9	100.3	2.7	100.3	2.6	100.3	3.3	100.4	2.7
09	100.9	3.2	101.2	3.7	100.9	3.2	101.0	3.2	101.0	3.9	100.8	3.1
10	101.1	3.7	101.5	4.4	101.1	3.7	101.1	3.5	101.1	4.2	101.2	3.8
11	100.6	3.0	100.5	3.3	100.6	3.0	100.6	2.9	100.6	3.3	100.7	3.1
12	101.1	3.2	101.2	3.6	101.1	3.2	101.1	3.1	101.0	3.4	101.1	3.4
2011 01	102.2	3.5	102.6	4.3	102.2	3.5	102.1	3.4	102.2	3.7	102.3	3.6
02	103.2	4.2	103.9	5.2	103.2	4.2	103.1	4.1	103.2	4.3	103.4	4.4
03	103.5	4.3	104.2	5.1	103.5	4.3	103.4	4.3	103.8	4.4	103.9	4.5
04	103.5	3.9	104.2	4.4	103.5	3.9	103.5	3.8	103.6	3.9	103.8	4.2
05	103.7	3.9	103.9	3.9	103.7	3.9	103.6	3.7	103.9	4.1	104.0	4.4
06	103.9	4.3	104.2	4.6	103.9	4.3	103.8	4.1	104.1	4.4	104.3	4.8
07	104.4	4.5	104.6	4.8	104.4	4.5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05.2	4.9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05.0	4.1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4.7	3.6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4	104.6	4.0	104.9	4.3	105.2	4.5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0 3/4	14,633	32.5	8.9	6,360	26.4	2.5	8,273
4/4	14,273	20.7	-2.5	6,583	18.4	3.5	7,690
2011 1/4	13,817	18.0	-3.2	7,593	32.1	15.3	6,224
2/4	14,839	10.5	7.4	8,589	38.4	13.1	6,250
3/4	15,057	2.9	1.5	8,741	37.4	1.8	6,316
2009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2	47.7	-8.9	1,849
02	3,651	53.1	-0.3	1,891	25.6	4.4	1,760
03	4,402	51.4	20.6	2,043	38.8	8.0	2,359
04	4,358	44.6	-1.0	1,913	39.4	-6.4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3	40.9	2.5	2,363	41.6	22.6	2,230
07	4,898	41.0	6.6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8	2,071	25.2	0.3	2,864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41	40.2	5.7	2,193
02	4,217	15.5	-10.9	2,217	17.3	-12.8	2,000
03	4,867	10.6	15.4	2,835	38.8	27.9	2,032
04	4,868	11.7	0.0	2,674	39.8	-5.5	2,194
05	5,014	11.8	3.0	2,783	44.3	4.0	2,231
06	4,957	7.9	-1.1	3,131	32.5	12.5	1,826
07	5,088	3.9	2.6	2,825	36.9	-9.8	2,263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05	44.0	11.8	2,230
10	5,542	11.0	2.0	2,835	39.6	-11.5	2,707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10	1,613	1,003	974	29	610	2.9	60.4
2010 3/4	1,616	1,036	1,006	29	581	2.8	62.3
4/4	1,623	1,007	981	26	615	2.6	60.4
2011 1/4	1,630	963	935	29	667	3.0	57.4
2/4	1,637	1,061	1,040	21	577	1.9	63.5
3/4	1,647	1,044	1,021	23	603	2.2	62.0
2009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02	1,605	936	896	40	669	4.3	55.8
03	1,606	957	933	24	650	2.5	58.1
04	1,608	1,015	989	25	593	2.5	61.5
05	1,610	1,031	1,006	25	579	2.5	62.5
06	1,612	1,037	1,015	22	575	2.1	63.0
07	1,614	1,037	1,007	30	578	2.9	62.4
08	1,616	1,032	1,006	25	585	2.4	62.3
09	1,618	1,039	1,006	33	580	3.2	62.1
10	1,620	1,033	1,005	28	587	2.7	62.0
11	1,622	1,020	995	25	602	2.4	61.3
12	1,625	968	942	26	657	2.6	58.0
2011 01	1,627	923	899	24	705	2.6	55.2
02	1,630	955	924	31	675	3.3	56.7
03	1,632	1,012	982	30	620	3.0	60.2
04	1,635	1,042	1,017	25	593	2.4	62.2
05	1,638	1,064	1,046	18	574	1.7	63.9
06	1,640	1,076	1,057	19	564	1.7	64.5
07	1,644	1,051	1,027	24	593	2.3	62.5
08	1,647	1,043	1,019	24	605	2.3	61.9
09	1,650	1,038	1,016	22	612	2.2	61.6
10	1,653	1,066	1,038	28	588	2.6	62.8

자료 : 충청지역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08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19	0.33	0.20	0.02	0.05
2010 3/4	0.20	0.25	0.54	0.02	0.12	0.03
4/4	0.14	0.14	0.18	0.41	0.04	0.06
2011 1/4	0.41	0.55	0.69	0.09	0.16	0.00
2/4	0.11	0.21	0.05	0.02	0.04	0.00
3/4	0.22	0.25	0.12	0.12	1.44	0.01
2009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10	210,392	-22.1	6,636,749	-7.9	6,347,493	19.7	141,946	-25.3
2010 3/4	41,451	-30.3	1,447,506	-17.2	1,287,048	9.9	34,666	-23.2
4/4	73,578	28.5	1,693,669	8.0	1,742,905	-8.5	29,129	-30.8
2011 1/4	44,502	-2.4	1,428,130	2.1	1,314,241	-8.4	25,309	-36.8
2/4	58,090	16.8	1,987,829	-5.2	2,080,921	9.3	22,308	-41.5
3/4	40,661	-1.9	2,920,380	101.8	1,621,229	26.0	19,828	-42.8
2009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09	9,891	-44.4	379,786	-28.2	393,149	3.2	10,851	-6.4
10	19,172	23.3	400,493	-8.9	464,780	-3.0	10,285	-5.2
11	21,637	18.6	812,945	64.2	666,098	34.5	9,824	-4.5
12	32,769	39.7	480,231	-28.6	591,027	24.4	9,020	-8.2
2011 01	14,265	-3.5	414,632	3.7	255,721	-2.1	8,750	-37.3
02	12,164	-28.12	403,350	-12.7	358,003	-12.7	8,477	-35.7
03	18,073	-11.28	610,148	13.4	700,517	-0.2	8,082	-37.4
04	20,501	-11.29	593,974	-6.9	724,923	33.7	7,620	-41.3
05	18,041	11.01	723,947	22.4	700,162	14.9	7,459	-40.9
06	19,548	2.6	669,908	-22.7	655,836	-12.8	7,229	-42.2
07	15,056	-10.2	522,989	-9.9	427,285	-7.4	6,903	-43.5
08	13,713	-7.3	1,504,930	208.9	456,491	5.6	6,546	-43.5
09	11,892	20.2	892,461	135.0	737,453	87.6	6,379	-41.2
10	11,696	-38.9	1,518,020	245.2	1,290,749	177.7	5,903	-42.6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11.6=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8 11	96.6	1.3	0.0	93.8	100.5	96.5	90.4	3.5	0.2	87.6	92.8	93.1
12	96.4	1.1	-0.2	93.6	100.3	96.9	90.2	3.3	-0.2	87.3	92.8	93.1
2009 01	96.0	0.9	-0.3	93.2	100.0	97.0	89.9	3.0	-0.4	86.7	92.8	93.3
02	95.8	0.9	-0.2	92.9	100.0	97.0	89.5	2.8	-0.4	86.3	92.6	93.3
03	95.7	0.7	-0.2	92.6	99.8	97.0	89.4	2.5	-0.1	86.0	92.8	93.3
04	95.6	0.8	0.0	92.5	99.9	97.4	89.2	2.0	-0.2	86.0	92.2	93.3
05	95.5	0.6	-0.1	92.5	99.5	97.4	89.3	1.8	0.0	86.1	92.2	93.3
06	95.5	0.2	0.0	92.3	99.5	97.4	89.2	1.1	-0.1	86.0	92.0	93.3
07	95.4	-0.1	0.0	92.3	99.5	97.4	89.4	1.0	0.2	86.1	92.3	93.4
08	95.4	-0.3	0.0	92.4	99.1	97.4	89.4	0.5	0.1	86.2	92.3	93.4
09	95.7	-0.8	0.3	92.7	99.4	98.1	89.9	0.1	0.6	86.4	93.0	94.0
10	96.2	-0.5	0.5	93.0	100.0	98.3	90.2	0.0	0.3	86.7	92.9	96.3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10	103.4	7.2	0.9	104.8	101.3	101.7	104.6	10.9	1.1	106.3	102.1	102.7
11	104.4	8.1	1.0	106.5	101.3	101.7	106.2	12.1	1.5	108.9	102.1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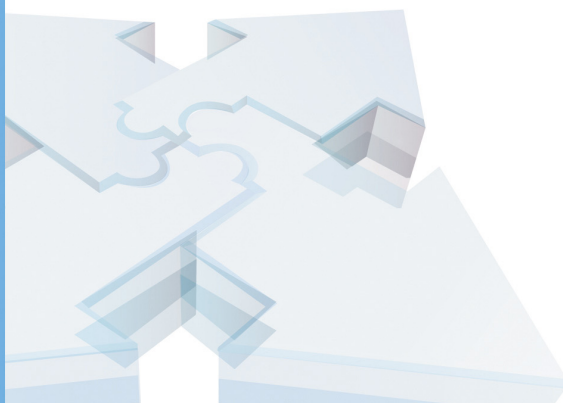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전미영	042-251-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041-840-1162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8 10	770.4	0.5	160.3	0.8	128.0	0.9
11	770.9	0.1	157.6	-1.7	131.4	2.6
12	770.6	-0.0	150.7	-4.4	131.3	-0.0
2009 01	761.3	-1.2	146.4	-2.9	131.9	0.4
02	753.9	-1.0	144.1	-1.5	125.8	-4.7
03	742.4	-1.5	144.1	-0.0	126.4	0.5
04	741.6	-0.1	145.3	0.8	125.2	-1.0
05	742.8	0.2	150.5	3.6	129.5	3.5
06	747.2	0.6	161.1	7.0	130.1	0.4
07	744.3	-0.4	171.9	6.7	131.1	0.8
08	744.5	0.0	181.0	5.3	130.9	-0.2
09	750.5	0.8	189.1	4.5	131.3	0.3
10	755.2	0.6	194.8	3.0	133.1	1.4
11	756.0	0.1	198.7	2.0	135.7	2.0
12	750.3	-0.8	202.3	1.9	138.4	2.0
2010 01	750.1	-0.0	205.0	1.3	139.4	0.7
02	752.0	0.3	206.7	0.8	141.1	1.2
03	756.6	0.6	208.4	0.8	140.0	-0.8
04	760.4	0.5	209.8	0.6	137.8	-1.6
05	762.6	0.3	212.4	1.3	135.4	-1.7
06	764.0	0.2	215.1	1.2	135.4	-0.0
07	765.2	0.2	216.8	0.8	137.9	1.9
08	764.8	-0.0	220.0	1.5	137.4	-0.4
09	762.1	-0.4	222.0	0.9	137.2	-0.2
10	755.6	-0.9	225.1	1.4	133.7	-2.5
11	753.5	-0.3	227.0	0.8	130.2	-2.6
12	755.2	0.2	226.8	-0.1	143.9	10.5
2011 01	760.2	0.7	228.6	0.8	164.4	14.2
02	767.9	1.0	229.5	0.4	174.6	6.2
03	771.7	0.5	228.9	-0.3	170.3	-2.5
04	773.9	0.3	228.9	0.0	162.7	-4.4
05	772.1	-0.2	231.5	1.1	169.0	3.8
06	774.3	0.3	235.5	1.7	174.2	3.1
07	777.1	0.4	237.2	0.7	177.1	1.6
08	776.2	-0.1	235.2	-0.9	174.2	-1.6
09	775.8	-0.1	237.8	1.1	172.1	-1.2
10	777.3	0.2	239.9	0.9	172.7	0.4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인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8 10	2,592,296.4	1.1	3,555,437.1	0.2	1,827,589.8	-1.4
11	2,586,037.0	-0.2	3,473,114.5	-2.3	1,841,902.1	0.8
12	2,553,407.0	-1.3	3,329,302.3	-4.1	1,827,831.6	-0.8
2009 01	2,537,137.4	-0.6	3,221,711.2	-3.2	1,688,079.5	-7.6
02	2,519,331.4	-0.7	3,104,932.5	-3.6	1,637,244.5	-3.0
03	2,505,141.8	-0.6	3,067,990.9	-1.2	1,547,558.1	-5.5
04	2,496,701.1	-0.3	3,077,398.4	0.3	1,480,643.4	-4.3
05	2,503,787.1	0.3	3,174,479.2	3.2	1,382,016.5	-6.7
06	2,549,210.5	1.8	3,366,406.4	6.0	1,356,663.9	-1.8
07	2,580,218.7	1.2	3,540,948.7	5.2	1,393,389.0	2.7
08	2,614,830.8	1.3	3,637,950.0	2.7	1,388,263.4	-0.4
09	2,656,591.7	1.6	3,713,543.7	2.1	1,414,917.2	1.9
10	2,696,393.7	1.5	3,788,025.5	2.0	1,445,091.1	2.1
11	2,749,918.8	2.0	3,888,837.2	2.7	1,485,408.1	2.8
12	2,803,504.0	1.9	4,012,875.2	3.2	1,507,421.8	1.5
2010 01	2,876,230.9	2.6	4,123,066.3	2.7	1,521,423.1	0.9
02	2,942,057.0	2.3	4,251,081.9	3.1	1,541,219.6	1.3
03	3,002,336.8	2.0	4,350,304.5	2.3	1,545,496.1	0.3
04	3,053,350.5	1.7	4,444,675.7	2.2	1,538,515.2	-0.5
05	3,102,286.7	1.6	4,559,333.1	2.6	1,546,980.5	0.6
06	3,142,582.9	1.3	4,646,511.6	1.9	1,590,161.8	2.8
07	3,165,124.5	0.7	4,752,875.8	2.3	1,620,703.0	1.9
08	3,197,543.0	1.0	4,825,096.9	1.5	1,631,801.1	0.7
09	3,230,304.1	1.0	4,870,082.1	0.9	1,646,806.1	0.9
10	3,262,241.5	1.0	4,884,486.6	0.3	1,654,152.0	0.4
11	3,288,050.9	0.8	4,859,316.4	-0.5	1,665,738.8	0.7
12	3,326,737.3	1.2	4,849,763.8	-0.2	1,637,603.9	-1.7
2011 01	3,378,911.3	1.6	4,895,456.4	1.0	1,657,597.6	1.2
02	3,410,428.5	0.9	4,883,305.4	-0.3	1,637,780.8	-1.2
03	3,444,055.8	1.0	4,861,682.9	-0.4	1,660,000.1	1.4
04	3,466,752.9	0.7	4,860,735.4	0.0	1,688,021.9	1.7
05	3,505,920.8	1.1	4,879,454.2	0.4	1,723,498.0	2.1
06	3,537,125.2	0.9	4,858,784.8	-0.4	1,773,435.7	2.9
07	3,543,543.4	0.2	4,756,145.5	-2.1	1783120.0	0.5
08	3,568,699.4	0.7	4,680,295.2	-1.6	1,841,198.7	3.3
09	3,584,800.4	0.5	4,711,822.8	0.7	1,877,342.3	2.0
10	3,600,464.2	0.4	4,760,673.7	1.0	1,909,050.7	1.7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변수명	자 료 명	단 위	자료기간	작성기관	자료출처
CN1	비농가취업자수	천명	90.1월~	통계청 사회통계과	KOSIS
CN2	산업생산지수	2005=100	90.1월~	통계청 산업동향과	KOSIS
CN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005=100	97.1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KOSIS
CN4	전력소비량	1,000kwh	90.1월~	한국전력 충남지사	한국전력공사
CN5	수출액/수출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CN6	수입액/수입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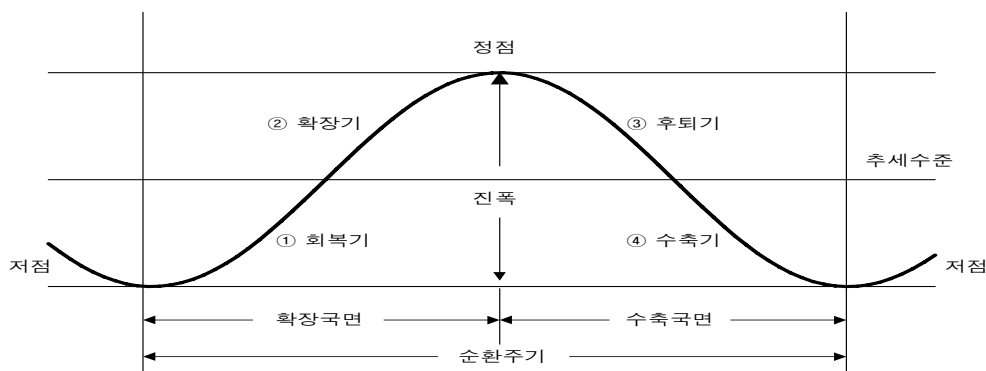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 · 동행 · 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경기 순환과정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률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률(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 (구성지표), $t = 2, 3, \dots, T$ (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률($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 (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률($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률(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률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률(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CEO 500프로젝트』 시행 공고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 만39세의 예비 창업희망자(1972.1.1~1993.12.31생)
- **선정인원** : 〇〇명 내외
- **신청기간** : 2011. 11. 21(월) ~ 2011. 12. 09(금)까지
- **신청분야 및 업종**

분 야	업 종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자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공예 등
지식서비스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등

- **지원내용** : 창업기본교육(30H) 실시, 창업 공간 지원, 맞춤형 창업지원, 재정지원 (창업활동비, 창업지원비, 청년창업 경영자금 보증 추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041-539-4548~9)

20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11. 12. 5(월) ~ 12. 16(금)
- **지원대상** : 2010년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이고 5,000만불 미만인 기업
 -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은 수출 100만불 이상, 2010년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제외
- **선정규모** : '11년 100개사(전국) ※ '10년 81개사 기업선정
- **지원내용**
 - 전용프로그램(수출역량진단 및 시장조사, 전용 해외마케팅), 수출 R&D 연계 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총 1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졸업기업은 지경부 World-Class300 프로그램 등 연계지원 추진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042-865-6150~6)

중소기업 마케팅 강화 워크숍 참가업체 모집

- 때 · 곳 : 2011. 12. 16(금) ~ 17(토) / 리솜스파캐슬리조트(예산군 덕산면 소재)
 - 모집기간 : 2011. 12. 13(화)까지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
 - 참가자격 : 2011년 판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한함
 - 주요내용 : 마케팅 강연(마케팅 전문가에 의한 마케팅 기업, 마케팅 성공 및 실패 사례 (전경련 전문위원)), 도내기업이 겪은 마케팅 사례 발표, 토론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으로 문의(041-539-4504)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Ksure-기업은행 특별출연 금융지원

- 신청기간 : 2014. 10월까지
 - 지원분야대상 : 기업은행 추천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공사 지원요건 충족기업
 - 추천대상 :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은행 신용등급 BB+급 이상
 - 대상지원 상품
 - 수출자금 조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채권 매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EFF),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 특약)
 - 수출자금 조달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우대지원내용 : 한도우대(책정가능한도의 2배 이내)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20% 할인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20% 할인
 - 수출신용보증(Nego) : 기본요율에서 0.1%p 차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문의(1588-3884)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SNS 플랫폼 앱(App) 콘텐츠 제작지원

- **분 야** : IP 경영 일반기업과 스타기업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 IP R&D, IP 경영 컨설팅 등
 - **당선자 포상** : 표창 9명(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차년도 사업 우선 지원
 - **신 청** : 2011. 10. 14(금)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041-558-5707)

2011년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11. 11. 30(수)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지원규모** : '11년 6억원
 -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장기술상의 문제 및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전문가 연계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 중소기업 기술문제 파악 및 기술전문가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대가로 연계기관에 지급하는 연계수수료 지원(건당 최대 200만원)
 - ※ 연계수수료의 75%는 정부지원, 25%는 기업부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로 문의(042-481-4460)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6월호

- 충남 산업의 고품질 윤희유, 디자인**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브랜드 전략방안**
그린나라 조용진
- 국가 디자인 정책과 주요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영선

2010. 7월호

- 충남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육성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 1년 365일, 축제 한마당**
건양대학교 지진호
- 충남 생태관광의 지향점**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2010. 8월호

-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정상은
- 최근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0. 9월호

-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 김양중 · 송두범
- DTI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0월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미·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공주대학교 남수중

2010. 11월호

-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4월호

일본 지진 파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운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최고가 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건강하고 안전한

육가공품

생산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에스앤비푸드

S&B FOOD CO., LTD

Rather than being the best,
We will become the faithful company
on basics producing healthy
and safe products!



(주) S&B FOOD 대표 브랜드
Representative Brand of the
S&B FOOD CO., LTD.



건강한 맛과 맛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주)에스앤비푸드

The S&B FOOD CO., LTD. Create Healthy-Taste.